

韓國海洋大學生の 問題傾向에 대한 調査研究(Ⅱ)

李 永 澤

〈目 次〉

1. 研究의 目的과 課題	(3) 領域別 各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
2. 韓國 大學生問題의 研究傾向(先行研究의 概要)	(4) 上·下 順位 30個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
3. 研究의 方法	5. 結論과 提言
(1) 對象 (2) 道具 (3) 經過	要 約
4. 結果와 解釋	參考文獻
(1) 問題의 領域別 分布	英文抄錄
(2) 他 大學과의 比較	

圖 表 目 次

表 1 學年別 對象 學生數	表 12 HF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2 調査對象 中 宗教를 가진 學生數	表 13 MR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3 問項修正 內容	表 14 MR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宗教를 가진 學生들 단의 反應狀況
表 4 各 問題領域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15 FVE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5 各 問題領域에 대한 宗教를 가진 學生들만의 學年別 反應狀況	表 16 ACW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6 各 大學의 問題領域別 反應狀況	表 17 CSM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7 HPD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18 上順位 反應 15個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8 FLC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19 下順位 反應 15個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9 SRA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圖 1 前年度 調査結果와의 領域別 反應狀況 比較
表 10 SPR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11 PPR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1. 研究의 目的과 課題

機育教關으로서의 大學에 있어서 教育活動의 對象은 大學生이며, 大學生이 屬하는 時期는 青年期이다. 그런데 이 「青年期」는 「肉體的, 精神的 靚음은 있으나 그 靚음에는 未熟과 可能性의 兩面이 包含되어 있다. 未熟은 非行, 犯罪, 反抗 등의 逸脫行爲(Deviant behavior)를 일으킴으로써 社會的 關心을, 可能性은 未來社會의 擔當者, 開發해야 할 潛在的 資源(Latent resources)으로서 政策的 關心을 喚起시키는 時期」¹⁾로서 人生의 매우 어려운 한 時期로 規定되고 있다.

1) 黃明淑, 韓國青年이 直面하고 있는 問題의 分析 — 學業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一, “漢陽大學校論文集”, Vol.8, 서울, 漢陽大學校, 1974, p.400.

2 學生指導研究, 第2輯

더구나 現代社會의 가장 큰 特徵인 高度의 科學과 技術의 發達은 現代社會로 하여금 靑少年들, 特히 젊은 大學生들에게 科學 技術에 대한 高度의 要請을 不知不識間에 強要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이를 一種의 被害意識, 所謂 “Technological crisis”로서 받아들여 「人間的 實存」(Human existence)이라는 이름 아래 一切의 傳統的인 것, 一切의 既存의인 것을 否定하려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既存社會의 틀속에서 疎外的, 周邊的 位置에 있었던 「젊은이」(youth)가 이제는 既存의 世代와 體制에 挑戰하려는 새로운 勢力을 形成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目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下에서 大學教育도 集團化, 大量化 그리고 標準化(同型化), 均質化하여 갔고 이에 따라 教育의 重要한 屬性인 個別化의 要請이 威脅받고 있으며, 高度産業社會에로의 趨勢에 따른 「知識의 爆發」은 健全한 모랄과 醇化된 情緒의 바탕이 없는 主知主義化, 實利主義化의 傾向을 促進하고 있는 實情이다.

위와 같은 靑年期의 特徵, 時代的 狀況 및 教育的 狀況은, 오늘 날 大學에 있어서의 Guidance 或은 Counseling의 機能과 役割을 增大시키고 있으며, 特히 他 大學과는 달리 生活의 大部分을 學生 全員이 寄宿舍內에서 營爲하고 있는 本 大學의 경우, 學生生活指導에 대한 學校의 責任은 相對的으로 크며 또 切實히 必要한 것이다.

그런데 効果的인 學生指導를 위하여서 가장 基礎的이고도 必要한 일은, 學生들이 主觀的으로 무엇을 「問題」로서 意識하고 있는가를 客觀的으로 把握하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本 研究者는 昨年度(1975年)에 本 大學 學生 問題에 대한 調查研究에 着手한 바 있다.²⁾

本 研究은 前年度에 이은 繼續研究의 一環으로서, 本 大學 學生 問題에 대한 研究成果의 蓄積과 그 變化 傾向의 探索에 보다 重點的인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 目的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各 指導教授의 面談·指導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ㄱ) 擔任 學生의 問題點을 손쉽게, 그러면서도 比較的 正確하게 發見할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各 指導教授로 하여금 擔任 學生 個個人의 問題點을 發見, 이를 面談 時의 適切한 話題로 設定하는 데 利用케 하며, ㄴ) 各 指導教授로 하여금 自己 擔當의 小單位 學生集團 全體의 問題傾向을 把握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指導方向 設定에 도움을 준다.

둘째로, 本 大學 學生 全體의 問題를 綜合的 立場에서 把握하여, 學生指導의 基本方向의 設定, 學生指導研究所의 事業計劃의 樹立 등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셋째로, 前年度의 調查結果와 比較하여, 本 大學 學生의 問題意識의 變化傾向을 알아 보고 그 原因을 考察한다.

위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 研究은 다음의 課題를 究明하려고 하였다.

1. 本 大學 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問題는 各 學年에 따라 어떠한 問題領域에 얼마만큼 分布되어 있는가?

2) 抽稿, 韓國海洋大學生의 問題傾向에 대한 調查研究 “學生指導研究”, Vol.1, 釜山: 韓國海洋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5, pp.7-36.

2. 本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他 大學生의 그것과 比較하여 어떠한 特性을 가지고 있는가?
3. 本大學 學生의 苦悶(問題)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4. 本大學 學生이 가장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와 덜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는 具體的으로 무엇인가?
5. 위의 課題들에 대하여 前年度와 比較할 때, 本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어떠한 變化를 보이며 그 原因은 무엇인가?

2. 韓國 大學生 問題의 研究傾向(先行研究의 概要)

1957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가 카운슬러講習會를主催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組織的인 學校카운슬링活動에 着手한 以來³⁾ 現在까지 約 20年 사이에 學校教育에 있어서 生活指導分野는 빠른 速度로 成長, 發展하여 왔다. 特히 1962年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의 設置는 中高等學校 카운슬링運動에 대한 指導的인 役割을 擔當하였을 뿐만 아니라 大學의 카운슬링活動을 刺戟하는 데에도 크게 影響을 주어 많은 大學이 서로 名稱은 조금씩 다르지만 專門的인 生活指導를 할 수 있는 機關을 附設하게 되었고, 이어서 1969년에는 大統領令⁴⁾으로 全國의 모든 國立大學(校)에 學生指導를 教授가 分擔하는 擔任指導教授制를 實施하도록 規定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大學에 있어서 生活指導活動은 그 機能도 날로 커지고 그 役割에 대한 期待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效果的인 指導 또는 活動이 始作되기 위해서는, 學生들이 具體的으로 어떤 問題를 가지고 있으며, 그 內容은 어떤 것이고 또 그 傾向과 程度는 어떤가를 確認하는 일이 하나의 前提로서 要請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部分의 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가 本格的인 指導活動을 하기 위한 基礎課題로서, 그 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을 把握하기 위한 調查研究에 着手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6年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가 R.L. Mooney 등의 MPCL(Mooney Problem Check-List)⁵⁾을 利用하여 大學生의 問題를 調查한 것⁶⁾을 비롯하여, 같은 해 釜山大學校의 研究⁷⁾가 發表된 以後, 지금까지 約 10年 동안에 大學生問題에 대한 調查研究은 우리 나라 大學生의 問題意識이 거의 全國的인 規模로 把握될 수 있을 만큼 進行되어 이 分野의 研究成果는 量的으로 크게 蓄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內容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從屬的인 變因들과의 相關關係를 밝히는 등, 多角度로 追究되어 質的인 深化를 이룩하였다.

3) 李榮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敎學圖書, 1972, p.65.

4) 大統領令 第5005(1969.8.12).

5) Mooney, R.L. & Gordon L.V., Manual for the Mooney Problem Check-List,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1960.

6)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 結果, “學生 研究”, 1966, Vol.3 pp.41~46.

7) 李元浩, 大學生問題 체크리스트를 통한 在學生의 問題調查, “研究報”, Vol.3, pp.1~8 (釜山大學校學生指導研究所, 1965).

4 學生指導研究, 第2輯

여기서 大學生 問題意識에 대한 本 研究의 研究史的 位置를 分明히 하고, 그 理論的 背景을 整理하기 위하여, 이들 先行研究의 成果를 좀 더 体系的으로 檢討·考察하여 볼 必要가 있다.

우리 나라 大學生 問題에 대한 現在까지의 研究들을 그 內容, 특히 目的을 基準으로 區分하여 살펴 보면 大体로 다음의 네 가지 立場이 있다. 즉 첫째로 各 大學이 우선 自己 大學의 學生 問題를 把握하여 直接 그 學生들에 대한 生活指導의 基礎資料를 얻는 데에 第一次의인 目的을 둔 基礎診斷的 立場, 둘째로 이리하여 大學別로 研究報告된 大學生의 問題를 意圖적으로 綜合하여 全國 또는 大學 種類別로 整理·分析함으로써 우리 나라 全体 大學生 問題의 特色과 傾向을 探索하는 綜合整理的 立場, 셋째로 問題의 有無·內容·程度·特性 등 現象的 實態把握의 立場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知能·性格 등 그 問題에 關係하는 重要的 心理的 變因들과의 相關關係까지를 밝히는 要因分析的 立場, 넷째로 韓國 大學生 問題의 全般的 또는 共通的인 性格을 밝혀 보려는 性格究明的 立場 등이 그것이다.

한편 研究의 方法 특히 調查道具에 있어서도 大學生 問題診斷目錄으로서 Mooney의 MPCL에만 지나치게 依存하던 初期의 模倣性에서 果敢히 벗어나 獨自의인 道具를 製作·使用하거나 우리 나라 大學生 問題의 診斷道具로서 標準化를 試圖하는 등 많은 變化와 發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調查道具에 관하여서는 다음 章(3. 方法)에서 論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上記한 바와 같이 目的과 內容을 中心으로 한 研究傾向에 대하여 좀 더 具體적으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 基礎診斷的 立場에 屬한다고 볼 수 있는 先行研究의 事例는 量的으로 가장 豊富한 實績을 남기고 있다. 이들 研究는 大概 研究者 또는 研究機關이 屬해 있는 自己 大學의 學生集團을 對象으로 全体的인 問題意識을 調查 確認하고 이를 同一集團內의 學年別(綜合大學校인 경우에는 大學別을 包含) 및 性別로 對比 分析하여 특별히 높은 反應을 보이는 問題를 具體적으로 추려서 注意를 喚起하는 등, 一般的으로 問題의 分布狀況을 中心으로 그 傾向과 程度를 究明 解釋하여 必要한 論議와 提言으로 誘導하고 있다. 이와 같은 研究類型에 對하여는 「全体學生들의 一般的인 問題傾向性만을 強調하거나, 學生들이 特別히 많은 關心을 보여주는 問項을 中心으로 資料를 解釋하거나, 아니면 大學, 學年, 性別 등 少數의 變因만을 研究함에 그쳤고, 보다 細部的인 領域 및 學生들의 特性에 따른 問題傾向의 一般的 또는 特殊한 問題點을 比較함이 不足하여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⁸⁾는 一部的 批判도 있다.

그러나 指導의 對象으로서 주어진 自己大學 學生集團이 當面한 苦悶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으며 이를 基礎資料로 하여 日常으로 接觸하고 있는 學生들을 만나 相談·指導함에 있어서 그들과의 話題의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바로 活用되어야 하겠으며, 學生과 學生自身の 問題에 대한 보다 完壁한 理解를 위한 精密·豊富한 研究의 体系的 基礎資料를 蒐集·蓄積하여야 되겠다는 現實的 要請을 考慮할 때,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 大學生 問題에 대한 研究는 어떤 原理의 發見 보다 먼저 道具의 資料의 獲得이라는 當面의 必要에 依해서 着手되었었다는 事情을 勘案할 때, 初期段階의

8) 崔震昇·宋明子, 大學生의 領域別 問題傾向에 관한 研究, “學生研究”, Vol.6, 釜山: 東亞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5, p.115.

基礎診斷的인 研究들의 成果는 이를 決코 過少評價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大体로 이 基礎診斷的 立場에 屬한다고 할 수 있는 研究들은 大略 다음과 같다. 즉 서울大學校(1966, 1970)⁹⁾, 釜山大學校(1966, 1973)¹⁰⁾, 慶北大學校(1966, 1974)¹¹⁾, 成均館大學校(1971)¹²⁾, 서울教育大學(1972)¹³⁾, 淑明女子大學校(1973)¹⁴⁾, 公州師範大學(1973)¹⁵⁾, 江陵教育大學(1973)¹⁶⁾, 韓國社會事業大學(1973)¹⁷⁾, 嶺南大學校(1974)¹⁸⁾, 梨花女子大學校(1974)¹⁹⁾, 仁荷大學校(1974)²⁰⁾ 및 韓國海洋大學(1975)²¹⁾ 등이 그것이다.

둘째로, 綜合整理的 立場에 屬하는 研究들은 上記 類型에 屬하는 大學(校)別 研究結果들을 綜合하여 이를 比較 分析하는 觀點에서 整理하거나, 調查研究 그 自体를 全國的 規模의 對象으로 實施하여 우리 나라 大學生 一般의 問題意識의 傾向을 探索하고 그 問題에 대한 解釋의 準據(reference)를 提示하려는 類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先行研究의 結果를 基礎로 한 것으로서는 慶北大學校(金學守·安昌圭, 1972),²²⁾ 忠南大學校(張大熙, 1972)²³⁾ 등이 있으며, 全國規模의 調查研究로는 中央教育研究所(金基錫 外, 1967),²⁴⁾ 淑明女子大學校(朱貞一 外, 1975)²⁵⁾ 등이 있으며, 특히 後者は 調查道具로서 「大學生問題 診斷檢査」의 표준화를 製作·報告하고 있어 큰 成果를 보였고, 仁川教育大學

- 9)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前掲書.
이관용, 대학생문제에 관한 일 연구, "學生研究", Vol.7, No.2, pp.27-37(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0.6).
- 10) 李元浩, 前掲書.
金道煥, 釜山大學校 學生問題의 分析, "研究報", Vol.9, 釜山: 釜山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3, pp.23-48.
- 11) 邊昌鎭 外 4人, 大學生의 問題傾向과 相談事例의 比較, "學生指導研究", Vol.1, 1968, 慶北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李明子, 大學新入生의 問題에 關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Vol.7, No.1, pp.29-38(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4).
- 12) 한범숙·한덕용, 대학생문제조사, "학생지도연구", Vol.1, pp.3-12(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71).
- 13) 尹八重, 서울教育大學生이 지닌 問題의 內容과 程度, 학생지도 연구, Vol.1, p.6(서울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2).
- 14) 崔炳媛, 淑大生의 問題, "學生生活研究", Vol.7,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3, pp.1-42
- 15) 愼鏞日, 師大生의 問題傾向 調查研究, Vol.2, p.34-35(公州師範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 16) 姜奎錫, 教育大學生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에 關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Vol.1, (강릉교육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1973), pp.5-16.
- 17) 金炳廈·金宰一, 大學生問題체크리스트에 依한 在學生의 問題傾向, "學生指導研究", Vol.1, No.1, pp.33-41(韓國社會事業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 18) 趙大鳳, 大學生의 個人問題 樣相研究, "學生研究", Vol.5, 嶺南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4 pp.1-8.
- 19) 安德子, 本校生의 問題傾向調查, "學生生活研究", Vol.10, pp.114-129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4).
- 20) 愼鏞日, 仁荷大生의 問題調查研究, "學生指導研究", Vol.1, pp.37-53(仁荷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4).
- 21) 拙稿, 前掲書.
- 22) 金學守·安昌圭, 大學生의 個人的 問題에 對한 考察, "학생지도연구", Vol.5, No.1, pp.38-42(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2).
- 23) 張大熙, 大學生 指導問題提起의 教育的 要因, "學生指導研究", Vol.1, 忠南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2, pp.1-31.
- 24) 金基錫 外 5人, 大學教育內容에 關한 綜合的 研究, 中央教育研究所, 1967.
- 25) 朱貞一 外 4人, 大學生問題診斷檢査 標準化 製作報告, "學生生活研究", Vol.9, 淑明女子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5, pp.3-55.

6 學生指導研究, 第2輯

(鄭駙煥, 1974)²⁶⁾은 全國의 教育大學生 問題를 綜合的으로 考察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類型的 研究들은 大學生 問題를 全國的인 觀點에서 把握하는 데 이바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散發的으로 行해지고 있던 研究에 對한 研究者의 對外的인 責任意識을 喚起시켜 研究態度的 慎重性을 더 하게 하였으며, 韓國大學生 問題에 대한 認識의 安定을 圖謀함으로써 이 分野의 研究가 한 段階의 發展을 이룩하는 데 寄與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째로, 要因分析의 立場이란, 大學生의 問題를 單純히 平面的으로 索出·確認·綜合하는 데 그치지 않고, 問題에 關聯되는 學生個人的 環境의·心理的 諸要因과의 相關關係를 보다 폭넓게 알아 보려는 研究로서, 大略 아래와 같은 報告들이 있다. 즉 서울大學校(林承權, 1969)²⁷⁾는 學生指導研究所의 相談申請書를 分析하여, 10個領域에 대한 年度別(1962~1968) 推移·學期別 및 月別 比較·大學別 및 學年別 比較 外에 父母關係·家業種類·本籍地別로 問題傾向을 밝혔으며, 東亞大學校(崔震昇·宋明子, 1975)²⁸⁾는 大學別·學年別·男女性別의 要因 外에, 一學年들의 卒業年度(즉 再修·三修 및 그 以上)·出身地域 등으로 分析하고, 따로 教授와의 對話希望度를 알아 본 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結果를 報告하였다. ① 學년이 높아지면 一般的으로 反應의 頻度は 減少된다. ② 再修·三修 등을 한 學生들은 그것을 하지 않은 學生에 比하여 深刻한 問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③ 男學生은 女學生 보다 將來職業에 대하여 많은 問題를 지니고 있다. ④ 農村出身 學生은 都市出身 보다 問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⑤ 教授-學生間의 人間關係 改善을 위한 보다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하다.

위의 두 研究와는 달리 좀 더 本格的인 相關關係研究가 全北大學校(金武吉, 1976)²⁹⁾에서 報告되었는데, 거기서는 大學生 問題와 各種 檢査結果(知能·入試成績·性格·MMQ)와의 相關關係를 研究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大學生 問題와 知能指數와는 相關이 없다. ② 大學生 問題와 入試成績은 相關이 없다. ③ 問題領域과 性格要因(여덟가지) 間에는 相關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 內容은 男女間에 差異가 있다. ④ 大學生 問題와 神經症傾向과는 大部分의 問題領域에서 相關이 있다(男學生). 이와 같은 研究들은 教育心理學的으로 大學生 問題의 解決을 向한 根源의 接近을 企圖하였다는 點, 따라서 이 分野의 研究를 한 층 深化시키는 成果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性格究明的 傾向의 研究로서는 漢陽大學校(黃明淑, 1974)³⁰⁾의 報告가 있는데 이 研究는 「韓國의 青年(大學生)은 理想指向的인 性格 보다 現實指向的인 性格의 問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假說의 設定에서 出發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고 있다. 즉 「韓國大學生들은 그 社會文

26) 鄭駙煥, 大學生들이 지니는 問題에 대한 小考, 教大生을 中心으로, “學生指導研究”, Vol. 2, pp. 31~39 (仁川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4).

27) 林承權, 相談申請書에 나타난 學生問題의 分析, “學生研究”, Vol. 6,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9, pp. 15~26.

28) 崔震昇, 宋明子, 前掲書, pp. 114~134

29) 金武吉, 大學生 問題에 關係되는 要因에 關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Vol. 5,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6, pp. 251~264.

30) 黃明淑, 前掲書.

化的 背景이 學生들로 하여금 그 發達段階에 맞는 젊은이다운 자유분방한 成就意慾을 助長하지 못하고 오히려 抑制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當面問題가 극히 基本的인 慾求充足을 얻으려는 現實指向的인 傾向이 농후하나, 젊은이 特有的 理想指向性은 희박했다.」 이와 같은 研究傾向은 앞으로 우리 나라 大學生 問題를 巨視的인 眼目에서 把握하고 그에 대한 社會文化的 接近의 길을 트는 데에 貢獻하게 될 것으로 期待된다.

지금까지 살펴 온 네 가지 研究類型 外에도, 大學生 問題의 診斷에서 특히 크게 反應된 特定領域의 問題에 대하여 集中的으로 追求한다면가(成均館大學校, 韓東一 外, 1976)³¹⁾, 特殊集團의 問題性만을 浮刻시켜 보려는(釜山大學校, 이원호, 1971)³²⁾ 등의 研究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以上과 같이 大學生 問題에 대한 研究는 最近 10餘年 사이에 그 目的과 內容 및 方法에 있어서 多樣한 實績을 남기고 質的으로도 크게 深化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런데 本 研究는 上記한 바와 같이 비록 前年度에 이은 繼續研究이기는 하나 本 大學 自體의 諸 特性(教育目標, 教育方法, 環境知覺)³³⁾에 비추어 基本的으로는 아직도 基礎診斷의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3. 研究의 方法

(1) 對 象

本 研究의 調查對象은 1976年 10月 現在의 本 大學 在學生 全員이었다. 其中 特別한 事由로 學校를 떠나 있던 學生을 除外한 總 912名(在籍學生의 92%)이 實際 調查에 應하였던 바 그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의 <表 1>과 같다.

<表 1> 學 年 別 調 查 對 象 學 生 數

學 生	大 學					專 門			總 計
	1	2	3	4	計	1	2	計	
在 籍 學 生 數	326	281	191	188	986	186	184	370	1,376
對 象 學 生 數	307	250	179	176	912	182	179	361	1,273
百 分 比	94	89	94	94	92	98	97	98	93

※ 專門學校는 參考로 提示함, 以下 諸表 같은.

31) 韓東一 外 3人, 韓國大學生의 大學生生活適應에 關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Vol.3, 성균관대학교 학생문제연구소, 1976.

32) 이원호, 남여공학대학에 있어서 여대생의 문제조사, “研究報”, Vol.7,釜山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6, pp.24~39.

33) 曹元鎬, 大學環境에 대한 大學生의 知覺特性에 關한 研究, “學生指導研究”, Vol.1, 韓國海洋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5.

8 學生指導研究, 第2輯

本 調查 研究에서는 後述하는 바(3—(2) 道具)와 같이, 前年度의 研究過程에서 特히 未洽함을 느꼈던 問題領域 7(道德과 宗教)에 特別한 關心을 두어, 첫째로 道具에 있어서 비교적 廣範하게 問項을 修正·洗練化하였으며, 둘째로 宗教를 가진 學生만의 이 問題領域에 대한 問題性을 따로 알아 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全体 對象 學生 中 宗教를 가진 學生數를 밝힐 必要가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의 <表 2>와 같다.

<表 2> 調查對象中 宗教를 가진 學生數

學 年 學 生	大 學					專 門			總 計
	1	2	3	4	計	1	2	計	
對象 學生 總數	307	250	179	176	912	182	179	361	1,273
宗教를 가진 學生數	98	90	66	54	308	48	62	110	418
百 分 比	31.9	36.0	36.8	31.0	33.8	20.9	34.6	32.8	33.3

本 研究의 對象集團인 本 大學의 學生은 國內의 他 一般 大學生들과는 다른 特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本 大學 學生들이 處해 있는 學校生活에 있어서의 制度的 特殊性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卒業後 法定의 資格(海技士)과 專攻(航海 또는 機關) 分野에의 服務義務가 주어지므로 그들의 將來의 進路가 確定的이다.
- 2) 在學中 授業料가 免除되고 被服과 宿食이 官給된다.
- 3) 一定한 實習期間을 除外하고는 全學生이 거의 全教育期間을 通하여 校內의 寄宿舍에 入舍하여 生活訓練을 받으면서 團體生活을 營爲한다.
- 4) 校內外에서 制服을 着用하여야 하며, 入學과 同時에 全員이 海軍豫備士官生(ROTC)으로 編入되어 所定의 軍事教育을 받는다.
- 5) 이에 따라 學校生活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嚴格한 規範의 統制下에 놓이게 된다는 點등이다.

本 調查研究는 그 實施過程에서 本 大學에 附設되어 있는 海洋專門學校 學生들에 대하여서도 一括 實施하였지만, 그 結果는 다만 參考資料로서 各 表의 末尾에 그 數值만을 밝혀 둔다.

(2) 道 具

學生 問題를 調查함에 있어서는 學生個人에 관한 斷片的·部分的인 것이 아니고 全体的이고 綜合的인 把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領域의 情報들이 包含되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A. E. Traxler는 다음과 같이 分類 提示하였다.³⁴⁾ 즉

- 1) 家庭的 背景의 問題
- 2) 거쳐 온 學校와 教育經驗의 問題

34) Traxler, A. E., Techniques of Guida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5, pp. 20~25,

- 3) 知的能力 또는 學業適應의 問題
- 4) 여러 教科領域에서의 成就도와 成長의 問題
- 5) 健康 및 身體發達上的 問題
- 6) 學校 밖에서의 生活經驗의 問題
- 7) 教育的, 職業的 興味の 問題
- 9) 人性的, 心理的 問題
- 10) 社交, 對人關係의 問題
- 11) 性的 問題
- 12) 將來의 抱負 또는 計劃의 問題

위와 같이 廣汎한 內容의 問題를 包含하면서도 比較的 短期間 內에 많은 學生을 對象으로 調查活動을 하는 데 一般的으로 採擇하게 되는 方法이 質問紙法이다. 多少間 難點을 克服해 가면서도 學生 問題調查研究에 있어서 主로 質問紙法을 活用하게 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質問紙法에 依하여 大學生 問題를 診斷하는 道具로서는 R.L. Mooney 等に 依하여 製作 發展된 “Mooney Problem Check-List(College Form)”³⁵⁾가 大學生들의 問題傾向을 全體的이고 綜合的으로 把握하는 데 하나의 基準이 되고 있다.³⁶⁾ Mooney의 이 “MPCL”(大學生 問題체크리스트)은 그 속에 問題의 廣範圍性과 組織性, 그 制作過程의 慎重性과 周到性 등으로 因하여, 世界各國의 教育現場에서 受容되어 本格的이고 科學的인 心理檢査 活動의 前提의 作業으로서 學生指導 및 相談活動에 有効한 基礎資料를 얻는 道具로 가장 널리 活用되고 있다.³⁷⁾

元來 “Mooney”의 MPCL에서는 學生問題가 11個 領域으로 分類되어 있고 各 領域마다 30個 問項씩이 배치되어 總 330個의 問項으로 構成되었으며, 그 應答方式은 ① 먼저 처음부터 한 번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면서 學生의 苦悶이나 關心事에 合致되는 問題에 밑줄을 치고, ②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읽어 가면서 學生이 크게 苦悶하거나 關心事에 合致된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表示하고 있는 問項을 가려 잡아 그 問項의 番號에 ○표를 치도록 하는 두 가지 反應形式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Mooney의 “MPCL”은 學生問題의 有無와 그 一般的 傾向 外에 問題性的 程度까지도 一旦 測定하여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가 “MPCL”을 完譯하여 “대학생문제 체크리스트”³⁸⁾로 使用·報告한 以來 各 大學의 學生指導研究所를 中心으로 하여 學生問題에 관한 實證的인 調查研究가 活潑히 進行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는 基本的으로는 “MPCL”에 依存하면 서도 그 程度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를 보이는 바, 이제 그 類型을 大體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즉

① 서울大學校(1966, 1970), 서울教育大學(1972), 韓國社會事業大學(1973) 등의 경우와 같이 “MPCL”을 翻譯 또는 翻案 使用하되 그 原案에 比較的 忠實한 경우.

35) Mooney, R. L. & Gordon, L. V., Op. cit.

36) 金炳廈·金宰一, 上揭書. p. 33.

37) 李明子, 前揭書.

38) 이관용, 前揭書.

10 學生指導研究, 第2輯

② 釜山大學校(1966), 成均館大學校(1971), 公州師範大學(1973), 仁荷大學校(1974) 등의 경우와 같이 比較的 廣範圍한 修正 또는 補完作業을 거쳐 “MPCL” 原案과는 그 內容과 組織에 있어 相當한 差異를 보이는 경우.

③ 慶北大學校(1974), 梨花女子大學校(1974) 등의 경우와 같이 그 道具에 各各 「K.N.U-Mooney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 「대학생 문제 진단검사—여자 대학생 용—」(황응연·진찬화·김제은 공동 제작) 등의 獨自的인 特定名稱을 附與하는 등, “MPCL” 原案에 對하여 獨自的인 立場을 取하는 경우.

④ 淑明女子大學校(1975)에 있어서와 같이 韓國의 大學生 問題診斷檢査로서의 標準化를 試圖하여 이를 製作한 경우의 네 가지 類型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는 Mooney의 “MPCL”이 그 根據 또는 基礎資料로 使用되었음에는 틀림 없다. 本 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도 昨年度에 이어 原則的으로 위의 ②의 類型에 屬한다. 다만 昨年度의 研究過程에서 發見된 問項洗練化의 必要性에 따라 道德·宗教問題領域과 學業適應問題領域을 中心으로 한 一部 問項의 內容을 修正하였는데, 그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의 <表 3>과 같다.

<表 3> 問 項 修 正 內 容

問題領域	問項番號	前 年 度 問 項 內 容	修 正 問 項 內 容
HPD	5	몸이 늘 괴롭다	몸이 늘 나른하다
	11	성기계통에 이상이 있다	비뇨기 계통에 이상이 있다
SPR	2	조심하고 수줍어 하거나 쉽게 기분이 상한다	지나치게 조심하고 수줍어하여 나른 내세우지 못하고 만다
PPR	6	자신력이 부족하다	배사에 자신이 있다
MR	7	나는 종교를 갖고 싶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가 온다
	8	나는 종교에 심취하지 못하고 있다	가질만한 종교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11	종교는 미신이다	종교의 비과학성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13	“천당”과 “지옥”이 나를 괴롭힌다	내세(來世)의 유무에 대해서 확실한 진리가 지지를 않는다
	15	나는 아직도 뚜렷한 종교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나의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고 있다
ACW	5	문장에 의한 표현력이 나쁘다	문장에 의한 표현력이 부족하다
	6	말로써 발표하기가 어렵다	언어에 의한 발표력이 부족하다
	8	기억력이 부족하다	공부는 아주 하기가 싫다
	9	독서가 느리다	보다 능률적인 독서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11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스스로 공부하고자하는 의욕적인 분위기가 어렵다
15	공부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다른 활동을 많이 한다	공부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수업외적(授業外的)인 일이 많다	
FVE	1	외국에 유학가고 싶다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 가고 싶다
	6	졸업 후에 다른 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인격없는 기능인(技能人)이 될까봐 염려된다

	7	교육내용이 다른 학교 또는 학과로 옮기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교육내용이 다른 학교 또는 학과로 옮기고 싶다
	9	장래에 대한 계획이 소홀하다	장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
CSM	4	성행위(육체관계)의 경험이 있다	성(性) 경험이 있다

이리하여 本 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는 「Mooney Problem Check-List」를 本 大學 學生들의 實情과 特性에 맞도록 翻案, 修正한 本 大學 「大學生 問題체크리스트」로 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Mooney 의 原案은 11個 問題領域에 各 30個 問題씩, 모두 330個 問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이 研究에서 翻案 使用한 체크리스트는 10個의 問題領域에 各 領域 마다 15個씩의 問項으로 簡素化되어 總 150個의 問項으로 作어졌다. 勿論 採擇된 問項에 있어서도 그 內容이 고쳐진 것도 있으며, 反應要領은, 無記名·非暗示의 方法에 따라 各자가 各 問項을 천천히 읽어 가면서 自己 自身の 知覺과 一致하던지 自己 自身の 苦惱이나 關心끼리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되는 項目的 番號 앞에 V 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檢査時間은 原則적으로 制限하지 않았다. 이 체크리스트의 10個의 問題領域의 名稱은 다음과 같다.

1. 健康과 身體의 發達(Health and Physical Development=HPD)
2. 經濟 및 生活條件(Finances and Living Condition=FLC)
3. 社會的 및 레크레이션活動(Social and Recreation Activities=SRA)
4. 社會的, 心理的 關係(Social and Psychological Relations=SPR)
5. 個人으로서의 心理的 關係(Personally Psychological Relations=PPR)
6. 家庭과 家族(Home and Family=HF)
7. 道德과 宗教(Morals and Religion=MR)
8. 學業에의 適應(Adjustment to College Work=ACW)
9. 將來의 職業과 教育(Future-Vocation and Education=FVE)
10. 求愛, 性 및 結婚(Courtship, Sex and Marriage=CSM)

(3) 經 過

調査는 1976年 10月 4일부터 8日사이의 期間 中에, 各 擔任 指導教授에 依하여 自己 擔任 學生集團 別로 實施되었다.

蒐集된 資料는 統計處理하여 百分率을 求한 後,

① 學生의 問題傾向의 學年別 水準에 따른 各 問題領域別 分布狀況을 알아 보기 위하여, 各 問題領域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을 整理하고, ② 이를 他 大學生의 問題傾向과는 다른 本 大學生 特有한 問題傾向의 有無를 確認하기 위하여 他 大學의 調査結果와 比較하였으며, ③ 問題性의 具體的인 內容을 밝히기 위하여 各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을 領域別로 分析하였으며, ④ 問題意識의 強度를 알아 보기 위하여 上·下順位 反應 各 15個 問項씩을 찾아 내어 그 學年別 狀況을 考察하였으며, ⑤ 對象 學生 中 宗教를 가진 學生만의 道德·宗教領域에서의 問題 特性을 알아 보고 이를 全体 學生의 그것

과 比較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宗教를 가진 學生들의 道德·宗教 問題領域에서의 反應狀況을 問題別로 整理하고 이를 考察하였다.

4. 結果와 解釋

(1) 問題의 領域別 分布狀況

우선 本 研究의 結果를 總括하는 뜻을 지닌 本 大學 學生의 問題傾向性的 領域別 分布狀況을 學年別로 整理하면 <表 4>와 같다.

<表 4> 各 問題領域에 對한 學生別 反應狀況

學 年	領 域	HPD	FLC	SRA	SPR	PPR	HF	MR	ACW	FVE	CSM
1	1	5.3* (9)**	13.7 (3)	16.3 (1)	11.6 (4)	9.1 (6)	4.7 (10)	6.9 (7)	15.6 (2)	10.4 (5)	1.4 (8)
	2	6.8 (7)	14.7 (2)	14.8 (1)	11.5 (4)	9.4 (6)	4.9 (10)	6.7 (8)	15.4 (3)	11.2 (5)	5.7 (9)
	3	6.0 (9)	14.4 (2)	16.0 (1)	11.6 (4)	9.5 (6)	5.2 (10)	6.5 (8)	12.4 (3)	10.6 (5)	7.8 (7)
	4	7.2 (7)	16.1 (1)	14.9 (2)	10.4 (5)	9.4 (6)	6.1 (10)	6.1 (9)	12.2 (3)	10.5 (4)	7.0 (8)
全 體	6.1 (9)	14.5 (2)	15.6 (1)	11.4 (4)	9.3 (6)	5.1 (10)	6.6 (8)	14.0 (3)	10.7 (5)	6.6 (7)	
專 門	1	6.2 (8)	14.1 (2)	15.2 (1)	11.1 (5)	9.8 (6)	5.7 (10)	6.6 (7)	13.9 (3)	11.3 (4)	6.0 (9)
	2	5.8 (10)	14.1 (2)	15.7 (1)	10.9 (5)	8.4 (6)	5.8 (9)	6.1 (8)	14.1 (3)	12.6 (4)	6.5 (7)
	全 體	6.0 (9)	13.6 (2)	15.4 (1)	11.0 (5)	9.2 (6)	5.8 (10)	6.4 (7)	14.0 (3)	11.9 (4)	6.2 (8)
合 計	6.1 (9)	14.4 (2)	15.4 (1)	11.3 (4)	9.3 (6)	5.3 (10)	6.5 (7)	14.0 (3)	11.1 (5)	6.5 (8)	

註: *反應値는 %, ** ()안은 順位, 以下 諸表 같음.

위 表의 數值(總 체크 數에 대한 領域別 체크 數의 百分率)에 따라 10個 問題領域 間의 分布順位를 보면,

SRA—FLC—ACW—SPR—FVE—PPR—CSM—MR—HPD—HF의 順으로, 最大 15.6%~最少 5.1% 範圍內에 分布되어 있다.

이 結果에서 다음의 몇 가지 點이 우리의 關心을 끈다. 즉

① 가장 높은 反應値가 15.6%, 가장 낮은 反應値가 5.1%로, 그 分布範圍가 10.5%로서 比較的 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本 大學 學生들이 지니고 있는 問題意識이 相對的으로 少數의 特定 領域에 偏重되어 있다는 事實과 함께, 集團成員 間에 問題意識의 同質性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만큼 個人差 또는 學年·學科 間的 差異가 적다는 것을 意味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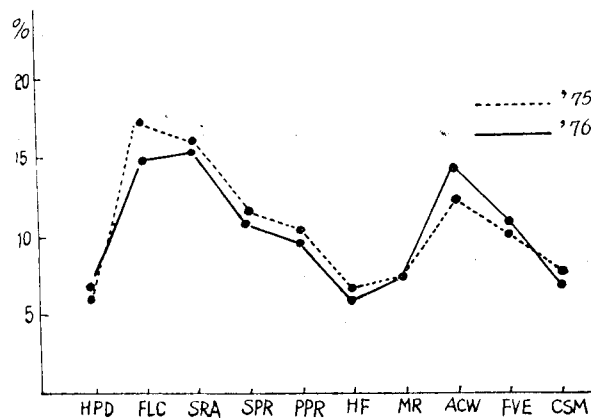
② 그러나 全体的으로 보아 第1順位와 第2順位인 SRA와 FLC 間的 反應値의 差는 不過 1.1%로서 이 두 領域이 問題性的 比重에 있어서 큰 差異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그런데 이 領域別順位는 學年 間에 相當한 對照를 이루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즉 全体로는 SRA가 第1順位, FLC가 第2順位이지만, 4學年은 오히려 反對로 1.2%의 差로 FLC가 第1順位, SRA가 第2順位로 나타났으며, 1學年의 경우는 2.6%라는 比較的 큰 差異로 SRA가 第1順位일 뿐만 아니라 FLC는 第3順位로 쳐졌고 따라서 第2順位는 모든 學年에서 다 第3順位를 보이고 있는 ACW가 되어 있다. 또 2學年과 3學年은 各各 0.1%, 1.6%의 差로 SRA가 第1順位, FLC가 第2順位로 되어 있는데, SRA에 대한 問題意識이 2學年에 比하여 3學年이 훨씬 높은 理由는, 本 調查實施 當時 3學年 學生 全員이 實習을 위하여 乘船, 海上生活 中이었다는 事實에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 點은, 이 들 3學年生들이 海上船舶生活를 經驗하지 않았던 2學年 當時(昨年度 調查)에는 SRA 16.5%, FLC 16.3%로서 不過 0.2%의 差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想起하면 더욱 分明해 지는데, 이러한 現象은 海上船舶生活環境의 特殊性에 대한 하나의 意味있는 示唆로서 크게 注目된다.

④ 綜合的으로 前年度의 調查結果와 比較하여 보면, 첫째로 全体的인 順位에 있어서 若干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즉 昨년에는 FLC가 第1順位, SRA가 第2順位이던 것이 今年에는 反對로 SRA—FLC의 順으로 되었다. 이는 그 동안 宿舍環境 및 給食改善의 問題가 꾸준히 論議 또는 試圖되어 왔던 탓으로 풀이된다. 둘째로 前述한 問題意識의 分布範圍가 昨年の 11.2%에서 10.5%로 僅少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問題意識의 偏重性이 緩和되고 있는 듯한 傾向을 느끼게 한다. 셋째로, 全般的으로 보아 本 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前年度에 比하여 그다지 顯著한 變化는 보이지 않았다.

本 大學 學生 問題의 傾向을 比較하기 위하여 그 領域別 反應狀況을 圖示하면 <圖 1>과 같다. 昨年度와 比較하여 多少나마 差異가 보이는 點은 FLC가 若干(2%) 낮아진 反面에, ACW가 相對的으로 (1.6%) 높아진 것을 指摘할 수 있다. 이는 昨年度의 新築校舍 竣工 以來 學生福祉問題와 勉學雰圍氣의 助成이 強調된 데에 基因한 것으로 解釋된다.

<圖 1> 前年度調查結果와의 領域別 反應狀況 比較



14 學生指導研究, 第2輯

⑤ 한편, 問項의 實質의인 內容을 가장 크게 修正한 道德·宗教의 問題領域에 대한 反應狀況을 보면, 意外에도 反應率(6.6%)과 順位(8位)가 前年度의 調查結果와 全的으로 同一하게 나타났다. 이는 勿論 問項內容의 如何에 不拘하고 根源的으로 이 領域(MR)에 對한 問題意識이 弱하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것이겠지만, 本 研究에서는 이와 같은 傾向의 背景을 좀 더 알아 보기 위하여, 宗教를 가진 學生들만의 全領域別 問題意識의 分布狀況과, 그들의 MR 領域 內의 各 問項別 反應狀況을 分析 比較하였는데, 우선 領域別 分布狀況을 學年別로 보면 <表 5>와 같다.

<表 5> 各 問題領域에 대한 宗教를 가진 學生들의 學年別 反應狀況

學年	領域	HPD	FLC	SRA	SPR	PPR	HF	MR	ACW	FVE	CSM
1		4.3 (10)	14.1 (3)	15.6 (1)	11.9 (4)	9.0 (6)	5.0 (9)	7.8 (7)	14.6 (2)	10.7 (5)	7.0 (8)
	2	6.5 (8)	15.0 (2)	15.7 (1)	11.7 (4)	8.9 (6)	4.8 (10)	7.1 (7)	12.7 (3)	11.4 (5)	6.4 (9)
	3	5.7 (9)	13.4 (2)	16.2 (1)	12.0 (4)	10.5 (6)	4.3 (10)	7.1 (7)	13.2 (3)	11.5 (5)	6.1 (8)
	4	6.9 (8)	17.6 (1)	15.0 (2)	10.6 (4)	9.2 (6)	6.3 (10)	6.7 (9)	10.8 (3)	9.9 (5)	7.3 (7)
全	體	5.6 (9)	14.7 (2)	15.7 (1)	11.7 (4)	9.4 (6)	4.9 (10)	7.3 (7)	13.2 (3)	11.0 (5)	6.7 (8)
專 門	1	6.4 (8)	13.4 (3)	16.4 (1)	11.2 (5)	8.3 (6)	5.2 (10)	7.4 (7)	14.0 (2)	11.5 (4)	6.1 (9)
	2	6.1 (9)	15.4 (2)	15.7 (1)	10.6 (5)	8.4 (6)	5.2 (10)	6.7 (7)	14.5 (3)	11.3 (4)	6.2 (8)
	全 體	6.2 (8)	14.5 (2)	16.0 (1)	10.9 (5)	8.4 (6)	5.2 (10)	7.0 (7)	14.3 (3)	11.4 (4)	6.1 (9)
合 計		5.8 (9)	14.6 (2)	15.8 (1)	11.5 (4)	9.1 (6)	5.0 (10)	7.2 (7)	13.5 (3)	11.1 (5)	6.5 (8)

위 表에 依하면, 全體學生의 問題傾向(<表 4>)과 全般的으로 差異가 없고, 다만 MR 領域이 0.6%의 僅少한 差로 한 順位 上昇하여 第8順位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第7順位이던 CSM 領域이 第8順位로 밀려 났을 뿐이다. 要컨데 이 結果는 上記한 바와 같이 本 大學 學生들은 이 領域(MR)에 대한 問題意識이 낮다는 事實을 確認시켜 주는 것이다.

(2) 他 大學과의 比較

本 研究의 結果를 國內外的 他 大學의 主要 先行 調查結果들과 對比하면 <表 6>과 같다.

<表 6> 各 大學의 問題領域別 反應狀況

大學 \ 領域	HPD	FLC	SRA	SPR	PPR	HF	MR	ACW	FVE	CSM
海 洋 大 (76年)	6.1 (9)	14.5 (2)	15.6 (1)	11.4 (4)	9.3 (6)	5.2 (10)	6.6 (8)	14.0 (3)	10.7 (5)	6.6 (7)
海 洋 大 (75年)	5.4 (9)	16.5 (1)	15.7 (2)	11.6 (4)	9.5 (6)	5.3 (10)	6.6 (8)	12.4 (3)	10.3 (5)	6.7 (7)
서 울 大 (70年) ¹⁾	4.18 (7)	5.63 (2)	7.83 (1)	5.48 (3)	5.16 (4)	3.69 (9)	4.92 (5)	4.55 (6)	4.11 (8)	—
慶 北 大 (72年) ²⁾	6.09 (10)	11.73 (2)	14.66 (1)	9.58 (5)	9.49 (6)	6.66 (8)	7.04 (7)	10.15 (3)	9.92 (4)	6.10 (9)
釜 山 大 (66年) ³⁾	6.0 (9)	10.3 (5)	14.0 (1)	9.2 (6)	12.1 (2)	5.1 (10)	6.2 (8)	10.5 (4)	11.5 (3)	6.4 (7)
東 亞 大 (76年)	3.41 (10)	4.08 (6)	7.62 (1)	4.64 (5)	4.84 (4)	3.49 (9)	3.53 (8)	4.07 (7)	5.27 (3)	6.75 (2)
Colorado(美)大 ⁴⁾	10 (5)	7 (7)	12 (3)	11 (4)	15 (2)	4 (9)	3 (10)	21 (1)	9 (6)	5 (8)
東京(H)大	.66 (1)	.56 (5)	.63 (3)	.64 (2)	.58 (4)	.40 (8)	.34 (9)	.30 (10)	.55 (6)	.50 (7)

※ 1), 2), 3), 4)는 各各 1個領域(CTP)이 除外되었음.

本 大學 全体學生의 問題傾向의 順位에 따라 이를 檢討하기로 한다.

① SRA : 이 領域의 反應率(一部 大學은 反應頻度の 平均値 즉 領域別 체크數에 대한 對象學生數의 平均)이 第1順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國內 모든 大學에 共通의이다. 本 大學의 경우는 昨年度 調査에서 第2順位이던 것이 反應率은 0.1% 낮아지면서도 順位는 第1順位로 올라갔는데,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前年度에 比한 本 調査研究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變化있다.

② FLC : 本 大學과 서울大, 慶北大가 다 같이 第2順位인데, 釜山大는 第5順位, 東亞大는 第6順位, 그리고 美國의 Colorado大學은 第7順位이며 日本 東京大學은 第5順位이다. 順位로서는 本 大學과 같은 第2順位이나, 第1順位인 SRA와의 差가 서울大는 2.2, 慶北大는 2.93인데 比하여 本 大學은 1.1%에 不過하며 前年度調査에서는 第1順位이었던 事實을 想起하면, 本 大學에 있어서의 이 領域은 學生들의 問題意識에서 如前히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③ ACW : 本 大學과 慶北大가 第3順位이고 釜山大가 第4順位로서 上位順位에 올라있으며 그 밖의 大學들은 第6順位 以下로 처져 있으나, Colorado大學은 越等히 높은 反應値로 第1順位로 올라 있다. 本 大學을 中心으로 볼 때, 같은 第3順位이기는 하나 慶北大의 反應値는 10.15%인데 比하여 本 大學은 14.0%로서, 本 大學의 前年度 結果 보다 約 2% 上昇하여 學業適應의 問題는 國內 他 大學에 比하여 顯著히 높은 問題性을 나타내고 있음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④ SPR : 이 領域의 問題性向은 國內外를 莫論하고 거의 비슷한 樣相임은 本 調査研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本 大學에서는 第4順位, 서울大가 第3順位, 慶北大와 東亞大가 다 같이 第5順位이며, 釜山大는 第6順位인 反面에 美國의 Colorado大는 第4順位이고 日本의 東京大만은 第2順位로서 注目을

끈다. 本大學의 이 結果는 前年度에 比하여 反應率이 0.2% 줄었을 뿐 별다른 變化를 읽을 수 없고 따라서 이 領域에 있어서 本大學만의 뚜렷한 特色은 發見되지 않는다.

⑤ FVE: 將來問題에 對하여서는 本大學의 경우 比較的 安定된 傾向을 보인다. 大部分의 國內 大學들이 이 領域에서 相當히 높은 反應을 보이는데, 서울大만은 第8順位로서 本大學 보다 훨씬 問題性이 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外國의 大學들(東京大·Colorado大)은 모두 本大學 보다 한 順位가 낮은 第3順位이다. 이 領域에 있어서도 前年度調査와의 差異는 無視해도 좋을 만큼(0.4%上昇) 나타났을 뿐이다.

⑥ PPR: 이 領域은 前年度와 다름 없이 第6順位이다. 慶北大가 本大學과 같이 第6順位이고, 서울大와 東亞大가 第4順位, 釜山大는 第2順位로 相當히 높다. 外國 大學의 경우는 一般的으로 이 領域의 反應이 높게 나타나 있다.

⑦ CSM: 이 領域에서는 本 研究에 있어 눈에 띄는 變化도 없고 國內外 他 大學들에 比하여 特別한 傾向도 없다. 다만, 이 領域에서 第2順位の 反應頻度を 보인 東亞大와는 顯著히 다르다.

⑧ MR: 前述한 바와 같이 前年度の 調査道具에서 6個 問項의 內容을 고쳐 實施하였으나, 그 結果는 奇異하게도 그 反應率(6.6%)과 順位(第3順位)에 있어서 모두 同一하게 나타났다. 이 領域은 本大學 뿐만 아니라 國內外를 莫論하고 大學生 問題領域으로서는 下順位の 傾向이다.

⑨ HPD: 健康 및 身體의 問題에 있어서 本大學 學生들은 入學 當初부터 嚴格한 身體的 基準에 따라 選拔되고 在學中에도 相當한 水準의 健康維持를 制度的으로 要求받고 있다.³⁹⁾ 東亞大, 慶北大 등 보다 높은 理由는 이러한 要求에 起因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前年度에 比하여 0.7%의 反應率 上昇을 보였으나 全体的으로 보아 注目할만한 變化는 없다. 그런데 한 가지 留意할 點은, 外國 大學生의 경우는 우리 나라에 比하여 매우 높은 健康 또는 身體上의 問題意識을 보이고 있다는 事實이다.

⑩ HF: 大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家庭的인 苦悶이나 問題意識은 다른 問題領域에 比하여 극히 낮은 것은 國內外를 莫論하고 共通的인 現象이다. 本大學의 경우도 反應率 最下位の 領域으로서 前年度와 比較할 때에도 反應率이 0.2%가 오히려 낮아졌을 뿐 順位나 全体的인 傾向에 아무런 變化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領域別로 檢討하여 온 바에 따라 本大學 學生問題의 主要한 特色을 抽出,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問題意識의 特定領域에의 偏重的인 傾向이 比較的 甚다.

둘째, 問題意識이 있어서 學年間의 差가 僅少하고 따라서 全体 學生間에 同質性이 強하다.

셋째, 生活統制를 比較的 強하게 받는 低學年生은 SRA에, 統制를 比較的 弱하게 받는 高學年은 FLC에 보다 強하게 反應함으로써 本大學 學生의 問題意識은 校內生活에 있어서의 統制的 狀況과 個人生活에 있어서의 現實的 慾求의 變化趨勢에 敏感하다.

39) 本大學 入學要綱의 身體檢査規準은 海軍士官學校의 身體檢査合格 規準과 同一함. 또 在學中 每年 身體檢査를 實施하여 不合格 時는 除籍됨.

배제, 上順位 2個領域(SRA, FLC)에 대한 反應도가 他 大學生들의 一般的 傾向과 水準을 壓倒하고 있다.

다섯째, 前年度 研究와 比較할 때 特定한 問題를 提起할 만큼 重要的 變化는 發見되지 않았다. 따라서 本 大學에 있어서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特別한 教育的 措處를 加하지 않는 限, 1年程度의 短期 間內에서는 意味있는 變化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領域別 各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

大學生의 個人的인 問題를 陳述한 150個 問項 全体에 대한 本 大學 學生들의 反應樣相을 各 領域 別로 整理·提示(〈表 7〉~〈表 17〉)하고 이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表 7〉 HPD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大 學					專 門			合 計
	1	2	3	4	全 体	1	2	全 体	
1. 운동이 부족하다.	21.8 (4)	24.4 (5)	54.2 (1)	47.2 (1)	33.8 (3)	46.7 (3)	31.3 (3)	39.1 (3)	35.3 (3)
2.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다	27.0 (3)	36.8 (3)	32.4 (3)	37.5 (3)	32.8 (4)	32.4 (5)	23.5 (3)	28.0 (4)	31.4 (4)
3. 용모나 체격에 매력 없이 마땅치 않게 여긴다.	17.9 (6)	16.9 (6)	17.9 (5)	14.9 (7)	17.0 (6)	26.9 (6)	17.9 (4)	22.4 (6)	18.5 (6)
4. 체질이 약해서 잔 병에 잘 걸린다.	10.4 (9)	13.6 (7)	12.8 (7)	16.5 (6)	12.9 (8)	12.1 (8)	7.8 (9)	9.9 (9)	12.1 (8)
5. 몸이 늘 나른하다.	43.3 (2)	60.4 (1)	31.9 (2)	42.0 (2)	49.5 (1)	56.0 (2)	58.6 (1)	57.3 (2)	51.7 (1)
6. 수면이 부족하다.	59.2 (1)	48.0 (2)	30.2 (4)	31.3 (4)	45.1 (2)	63.2 (1)	49.7 (2)	78.7 (1)	48.3 (2)
7. 시력이 약하거나 눈에 이상이 있다.	11.0 (8)	10.0 (10)	8.9 (10)	10.8 (10)	10.3 (10)	40.7 (4)	11.2 (6)	26.0 (5)	14.8 (7)
8.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다.	20.1 (5)	27.2 (4)	16.2 (6)	29.0 (5)	23.0 (5)	23.6 (7)	17.3 (5)	20.5 (7)	22.3 (5)
9. 귀에 이상이 있다.	7.8 (11)	7.6 (11)	3.9 (12)	5.7 (13)	6.6 (11)	2.2 (12)	3.9 (12)	3.0 (12)	5.6 (12)
10. 피부병이 있다.	9.1 (10)	12.8 (8)	12.8 (7)	11.4 (9)	11.3 (9)	8.2 (10)	17.9 (8)	8.0 (10)	10.4 (10)
11. 비뇨기 계통에 이상이 있다	6.1 (12)	6.9 (12)	3.4 (14)	8.0 (11)	5.9 (12)	6.0 (11)	5.6 (11)	5.8 (11)	5.9 (11)
12. 관절에 이상이 있다.	15.3 (7)	12.0 (9)	12.3 (9)	14.2 (8)	13.6 (7)	9.3 (9)	10.6 (7)	10.0 (8)	12.6 (9)
13. 내분비선에 이상이 있다.	20.0 (13)	2.8 (14)	5.0 (11)	3.4 (14)	3.2 (14)	2.2 (12)	0 (14)	1.1 (13)	2.6 (14)
14. 심장에 이상이 있다.	1.0 (15)	4.8 (13)	3.9 (12)	7.3 (12)	3.8 (13)	1.6 (14)	0.5 (13)	1.1 (13)	3.1 (13)
15. 폐결핵이 있다.	1.6 (14)	1.6 (15)	0.6 (15)	1.1 (15)	1.3 (15)	1.1 (15)	—	0.5 (15)	1.1 (15)

1) HPD 領域

이 領域에서는 全体 學生의 49.5%와 45.1%가 “몸이 늘 나른하다”와 “수면이 부족하다”를 呼訴하고 있으며, 運動不足과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睡眠不足은 前年度 調査에서 35%의 反應率로 第1順位이던 것이 이번 調査에서는 反應率은 높아졌으나 그 順位는 第5順位로 물러서고 있는데 이는 第1順位인 疲勞感에 대한 反應率이 相對的으로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몸이 늘 나른하다”는 本 調査에서 그 表現을 若干 修正하였다(前年度에는 “몸이 늘 괴롭다”)는 데에도 反應率이 上昇하게 된 理由가 있겠지만, 精神-心理的 要因과도 關聯지어 질 수 있는 身體的인 疲勞感에 對한 呼訴가 顯著하게(前年度 22%) 높아진 것(49.5%)은 注目을 要한다.

그 밖에는 前年度의 結果와 별 差異가 없다. 다만, 消化器官, 皮膚, 關節 其他 特定 疾患에 대한 呼訴는 專門的이고 個別的인 調査와 治療의 必要性이 時急함을 말하여 준다.

2) FLC 領域

<表 8> FLC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合 計
	1	2	3	4	全 体	1	2	全 体	
1. 취미, 오락, 기타에 필요한 사소한 장비가 부족하다.	62.2 (5)	55.6 (5)	54.7 (5)	59.7 (3)	58.4 (5)	72.0 (11)	54.7 (6)	63.4 (5)	59.9 (5)
2. 책을 사볼 돈이 부족하다.	48.9 (7)	42.8 (7)	34.6 (9)	45.5 (5)	43.7 (8)	45.1 (8)	12.8 (15)	29.1 (12)	39.6 (8)
3. 등록금 납부에 곤란을 느낀다.	28.6 (10)	21.6 (13)	32.4 (11)	39.2 (9)	29.5 (10)	35.7 (10)	31.3 (10)	33.5 (10)	30.6 (10)
4. 당장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13.3 (15)	13.2 (15)	11.7 (15)	26.1 (13)	15.5 (15)	20.9 (14)	19.0 (13)	19.9 (14)	16.7 (15)
5. 나는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27.7 (11)	24.4 (11)	27.9 (12)	23.9 (14)	26.1 (11)	35.2 (12)	32.4 (9)	33.9 (9)	28.3 (11)
6. 나로서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17.3 (13)	16.3 (14)	15.6 (14)	26.7 (12)	18.6 (14)	22.0 (13)	19.0 (13)	20.5 (13)	19.2 (14)
7. 동생들의 학비가 걱정이다.	20.1 (12)	22.4 (12)	26.8 (13)	33.5 (10)	24.7 (13)	35.7 (10)	25.7 (11)	30.7 (11)	26.4 (12)
8.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71.0 (2)	68.8 (2)	60.3 (3)	42.0 (6)	62.7 (4)	64.8 (6)	48.6 (7)	56.8 (6)	61.0 (11)
9. 숙사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51.4 (6)	42.4 (8)	50.8 (6)	41.5 (7)	46.9 (6)	75.8 (2)	66.5 (1)	71.2 (2)	53.8 (6)
10. 일상의 음식물이 입에 맞지 않는다.	16.3 (14)	26.0 (10)	34.6 (9)	30.1 (11)	25.2 (12)	15.9 (15)	23.5 (12)	19.7 (15)	23.6 (13)
11. 교내생활에 있어서 보건위생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45.7 (8)	44.0 (6)	45.8 (8)	39.8 (8)	44.1 (7)	50.5 (7)	55.3 (5)	52.9 (7)	46.6 (7)
12.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65.6 (4)	80.4 (1)	62.0 (2)	78.4 (1)	71.2 (1)	70.3 (5)	60.9 (2)	65.7 (3)	69.6 (2)
13. 정해진 식사시간을 기다려면 자주 배가 고프다.	35.1 (9)	28.4 (9)	46.3 (7)	22.2 (15)	33.0 (9)	38.5 (9)	36.9 (8)	37.7 (8)	34.3 (9)
14. 학교 캠퍼스의 자연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69.7 (3)	58.8 (4)	71.5 (1)	69.3 (2)	67.0 (3)	73.1 (3)	57.0 (3)	65.1 (4)	66.5 (3)
15. 좀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	92.5 (1)	67.2 (3)	59.2 (4)	51.7 (4)	71.2 (1)	94.5 (1)	55.9 (4)	75.3 (1)	72.3 (1)

이 領域에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와 “좀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에 全体學生이 71.2%의 反應率을 보임으로써 함께 第1順位가 되었다. 前年度에는 前者가 86%로 第1順位, 後者는 69%로서 第2順位이었다.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前年度 調査에서 150個 全体 問項 가운데서 第1順位이었는데 이번 調査에서는 第2順位로 되었으며 反應率도 約 15% 낮아지고 있다. 相對的으로 “좀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反應率도 2%以上 上昇하였고, 이 밖에도 이 領域에서 特別히 注目되는 變化로서 “학교 캠퍼스의 자연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前年度의 46%로 第7順位이던 것이 67%, 第3順位로 올라섰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에 對한 反應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問題에 對한 反應의 變化는 經濟的 與件이 前年度 보다 더 惡化된 데서라기 보다 그 동안 本大學 學生指導研究所를 中心으로 한 獎學副敎의 斡旋活動이 表面화된 데에 刺戟된 것으로도 보인다.

3) SRA 領域

<表 9> SRA 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大 學 全 體	專 門			合 計
	1	2	3	4		1	2	全 體	
1. 잘 한다고 생각하는 특기가 없다.	57.3 (7)	46.5 (6)	65.9 (2)	52.3 (2)	55.5 (5)	61.0 (5)	36.3 (10)	48.8 (8)	53.6 (6)
2.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서툴다.	56.3 (8)	41.6 (7)	53.6 (7)	36.9 (8)	48.0 (8)	51.6 (9)	35.8 (11)	43.8 (11)	46.8 (8)
3. 사교활동을 너무 적게 한다.	70.6 (4)	53.6 (3)	61.5 (4)	50.0 (3)	60.2 (3)	58.2 (6)	60.3 (3)	59.3 (5)	59.9 (4)
4. 학생 그룹활동에 참가하는 일이 적다.	47.9 (8)	47.3 (5)	57.0 (5)	48.3 (4)	50.0 (6)	73.6 (4)	51.9 (6)	62.9 (4)	53.7 (5)
5.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44.3 (11)	30.0 (11)	41.3 (11)	36.4 (9)	38.3 (10)	52.2 (8)	49.7 (7)	51.0 (7)	41.9 (10)
6. 취미 오락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	83.3 (1)	65.6 (2)	63.1 (3)	44.3 (6)	67.0 (2)	84.1 (2)	66.5 (2)	75.3 (2)	69.4 (2)
7. 음악 미술 기타 예술의 세계에 접촉할 기회가 적다.	78.5 (2)	68.0 (1)	69.3 (1)	62.5 (1)	70.7 (1)	84.6 (1)	71.5 (1)	78.1 (1)	72.8 (1)
8. 교제할 때 화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59.6 (6)	36.4 (10)	42.5 (10)	33.5 (11)	44.8 (9)	48.9 (10)	44.7 (9)	46.8 (9)	45.4 (9)
9. 차원을 즐길 기회가 적다.	72.3 (3)	53.2 (4)	54.7 (6)	46.0 (5)	58.7 (4)	75.8 (3)	59.2 (4)	67.6 (3)	61.2 (3)
10. 읽고 싶은 책을 읽을 기회가 적다.	62.8 (5)	44.8 (8)	46.9 (8)	36.4 (7)	48.6 (7)	58.2 (6)	58.7 (5)	58.4 (6)	51.4 (7)
11. 운동경기의 재주가 부족하다.	41.0 (12)	37.6 (9)	40.2 (12)	28.4 (12)	37.5 (11)	41.2 (12)	32.4 (12)	36.8 (12)	37.3 (12)
12. 단정한 몸차림을 안하는 편이다.	18.9 (15)	16.0 (15)	16.8 (15)	17.6 (15)	17.4 (15)	20.9 (14)	16.8 (14)	18.8 (14)	17.8 (15)
13. 가끔 지나치게 술을 마신다.	23.1 (14)	29.6 (12)	29.6 (13)	42.0 (7)	29.8 (13)	35.2 (13)	23.5 (13)	29.4 (13)	29.7 (13)

14. 예의범절이나 에티켓 생활에 미숙하다.	25.4 (13)	20.0 (14)	17.3 (14)	21.0 (14)	21.5 (14)	20.9 (14)	13.4 (15)	17.2 (15)	20.3 (14)
15. 세상 돌아가는 것이 궁금하다.	45.3 (10)	29.6 (12)	45.8 (9)	26.1 (13)	37.4 (12)	45.1 (11)	48.0 (8)	46.5 (10)	40.0 (11)

이 領域은 前年度 調査에서 領域別 分布順位 第1位이던 FLC를 壓倒하고 本 調査에서 第1順位로 나신 問題領域으로서, 15個 問項이 모두 學生들에게는 比較的 意味있는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는데 특히 높은 反應을 보이는 問項으로는 “음악, 미술 기타 예술의 세계에 접촉할 기회가 적다”(70.7%), “취미 오락 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67%), “사회활동을 너무 적게 한다”(60.2%), “자연을 즐길 기회가 적다”(58.7%) 등 主로 情緒的 性格이 強한 것들이다.

15個 問項中 6個 問項에 50% 以上の 反應率을 보이는 것은 이 領域에 대한 本 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이 強함을 立證하는 것이다. 全体 學生의 50% 以上の 反應을 보인 問項이 6個인 것은 前年度에 比하여 2個 問項이 더 增加한 것인데, 이 밖에도 問項에 따라 多少間의 反應率差가 있을 뿐 注目할 만한 變化는 없다.

4) SPR 領域

<表 10> SPR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合 計
	1	2	3	4	全体	1	2	全体	
1.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78.5 (2)	70.0 (2)	67.6 (2)	59.1 (1)	70.3 (2)	87.9 (1)	75.4 (1)	81.7 (1)	73.5 (1)
2. 지나치게 소심하고 수줍어하여 나를 배제하지 못하고 만다.	24.1 (9)	21.6 (9)	26.3 (10)	19.9 (7)	23.0 (9)	32.4 (9)	20.7 (10)	26.6 (9)	34.0 (9)
3. 남의 언행에 대하여 쉽게 기분이 상한다.	41.3 (6)	47.6 (4)	44.7 (5)	38.6 (5)	43.2 (5)	42.9 (5)	38.5 (5)	40.7 (5)	42.5 (5)
4. 생각(사상)이 다른 동료들과는 어울리기가 싫다.	40.0 (7)	36.8 (6)	41.9 (6)	39.2 (4)	39.7 (6)	42.3 (6)	37.4 (6)	40.0 (6)	39.7 (6)
5. 나를 잘 이해하여 주는 사람이 없다.	36.8 (8)	26.4 (8)	26.8 (8)	19.3 (8)	28.6 (6)	37.4 (7)	24.0 (8)	30.7 (8)	29.2 (8)
6.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10.1 (14)	6.0 (14)	11.7 (14)	6.8 (14)	8.7 (14)	15.4 (14)	7.8 (14)	11.6 (14)	9.5 (14)
7. 남을 잘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편이다.	19.8 (10)	15.2 (11)	21.2 (11)	14.8 (11)	17.9 (10)	26.4 (11)	21.8 (9)	24.1 (10)	19.6 (10)
8. 남을 너무 지배하려고 한다.	13.4 (13)	12.4 (13)	12.3 (13)	10.8 (13)	12.4 (13)	21.4 (13)	8.4 (13)	15.0 (13)	13.1 (13)
9.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적다.	16.6 (12)	14.5 (12)	26.8 (8)	13.6 (12)	17.5 (12)	24.7 (12)	16.2 (12)	20.5 (12)	18.4 (12)
10.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	2.9 (15)	2.8 (15)	3.9 (15)	2.3 (15)	3.0 (15)	10.4 (15)	4.4 (15)	7.5 (15)	4.2 (15)
11. 학교생활에 있어서 상·하급생 간의 인간적인 이해가 어렵다.	86.0 (1)	74.4 (1)	65.9 (1)	50.0 (3)	71.9 (1)	76.9 (2)	69.3 (2)	73.1 (2)	72.3 (2)

12. 나는 학교 당국이나 상급자의 요구를 비판하지 않는 편이다.	19.7 (11)	17.6 (10)	13.4 (12)	18.8 (10)	17.8 (11)	29.1 (10)	17.8 (11)	23.3 (11)	19.3 (11)
13. 학교안에서는 가슴을 열고 고민을 털어 놓을 친구가 적다.	67.4 (3)	58.0 (3)	67.6 (2)	35.8 (6)	58.8 (3)	56.6 (3)	48.0 (3)	52.4 (3)	57.0 (3)
14. 나는 교내에서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42.0 (5)	30.0 (7)	38.5 (7)	19.3 (8)	33.7 (7)	36.8 (8)	29.1 (7)	33.0 (7)	33.5 (7)
15. 상륙을 해도 별로 잘 데가 없다.	64.2 (4)	45.6 (5)	45.3 (4)	56.3 (2)	53.8 (4)	48.4 (4)	45.3 (4)	46.8 (4)	51.8 (4)

이 領域에서 50% 以上の 높은 反應을 보인 問項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상·하급생 간에 인간적 인 이해가 어렵다”(71.9%), “여행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70.3%), “학교 안에서는 가슴을 열고 고민을 털어 놓을 친구가 적다”(58.8%), “상륙을 해도 별로 잘 데가 없다”(53.8%) 등인데, 「上·下級生 間의 理解」 問題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本 調査의 150個 모든 問項 中에서 가장 높은 反應率(71.9%)을 나타냄으로써 第1順位가 된 問項이다. 이 問項에 대한 各 學年 間의 反應率이 第1學年이 86.0%, 第2學年이 74.7%, 第3學年이 65.9%, 第4學年이 50.0%로, 第4學年을 除外한 全 學年이 昨年度에 比하여 顯著하게 높은 反應을 보이며, 低學年일 수록 더 높게 나타나 있다는 點은 우리들의 注目을 끈다.

大體로 이 領域內에서는 위와 같은 類型의 問項들에 대한 反應率이 前年度에 比하여 若干 씩 上昇한 傾向이고, 人間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社會的 組織生活에서의 心理的 關係를 다룬 이 領域에서 比較的 強한 反應을 보이는 많은 問題가 告白되고 있는 傾向은 前年度와 別로 다를 바 없다.

5) PPR 領域

<表 11> PPR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合 計			
	1	2	3	4	全体				
1. 공상을 많이 한다.	61.9 (1)	66.0 (1)	48.0 (2)	44.3 (2)	56.9 (1)	79.1 (1)	47.5 (1)	63.4 (1)	58.8 (1)
2. 사소한 일에 잘 근심을 한다.	41.4 (3)	34.0 (3)	42.5 (4)	41.5 (3)	39.6 (3)	48.4 (3)	33.5 (3)	41.0 (3)	40.0 (3)
3. 결단성이 부족하다.	56.7 (2)	55.2 (2)	50.8 (1)	49.4 (1)	52.3 (2)	54.4 (2)	41.9 (2)	49.2 (2)	51.1 (2)
4. 우울한 편이다.	35.1 (6)	32.4 (4)	34.1 (6)	32.4 (5)	36.1 (5)	46.7 (5)	32.4 (4)	39.6 (4)	37.1 (4)
5. 신경질을 잘 부린다.	25.1 (9)	20.0 (9)	25.1 (8)	18.8 (8)	22.5 (8)	44.0 (6)	27.4 (7)	35.7 (5)	26.2 (7)
6. 메사에 자신이 없다.	25.4 (8)	18.8 (10)	17.9 (11)	18.8 (8)	20.8 (10)	25.8 (10)	18.4 (11)	22.2 (10)	21.2 (10)
7. 잘 흥분한다	19.2 (11)	21.2 (8)	29.6 (7)	20.5 (7)	22.0 (9)	22.5 (11)	20.7 (8)	21.6 (11)	21.9 (9)

8. 게으른 편이다.	36.5 (5)	31.2 (6)	34.6 (5)	29.0 (6)	33.2 (6)	35.2 (8)	27.9 (6)	31.6 (8)	32.8 (6)
9. 인내력이 부족하다.	39.1 (4)	32.0 (5)	45.3 (3)	35.8 (4)	37.7 (4)	37.4 (7)	30.2 (5)	33.8 (6)	36.6 (5)
10.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 같다.	26.4 (7)	21.6 (7)	22.9 (10)	18.8 (8)	22.9 (7)	47.8 (4)	19.0 (9)	33.5 (7)	25.9 (8)
11. 종종 자살할까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14.0 (13)	12.4 (13)	8.3 (14)	10.8 (13)	11.8 (13)	15.9 (13)	11.7 (13)	13.9 (13)	12.4 (13)
12. 불행한 사람인 것 같다.	22.3 (10)	18.4 (11)	17.9 (11)	15.9 (11)	19.2 (11)	26.9 (9)	19.0 (9)	23.0 (9)	20.3 (11)
13. 조심성이 없다.	18.9 (12)	16.0 (12)	24.0 (9)	14.8 (12)	18.3 (12)	19.8 (12)	14.0 (12)	16.9 (12)	17.9 (12)
14. 불쾌한 꿈을 자주 꾸다.	5.9 (14)	10.0 (14)	12.8 (13)	9.7 (14)	9.1 (14)	9.9 (15)	6.7 (15)	8.3 (15)	8.9 (14)
15.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5.5 (15)	6.4 (15)	6.7 (15)	8.0 (15)	6.5 (15)	10.4 (14)	7.8 (14)	9.1 (14)	7.2 (15)

領域別로나, 問項別로나 順位에 있어서는 前年度의 調査結果와 큰 差異가 없으나, 重要 問項에서 約 6% 以上 反應率이 높아지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元來 이 領域의 問題들은 個人의 人性을 形成하는 心理的 深層에 깊은 關聯을 가진 問題로서 集團의 10% 以上이 問題의 反應을 보인다면 이는 決코 悚惚히 보아 넘길 수 없는 比重을 가지는 것이다. 좀 더 科學的인 心理檢査와 精神醫學的인 接近의 必要性에 대한 示唆, 그리고 高級 商船士官의 指導力 培養을 爲한 人格教育 強化의 必要性이 本 研究에서 한 층 더 強調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HF 領域

<表 12> HF 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大 學					專 門			合 計
	1	2	3	4	全体	1	2	全体	
1. 나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62.9 (1)	52.4 (2)	54.7 (2)	53.4 (2)	56.6 (2)	63.7 (2)	62.0 (1)	62.9 (2)	59.4 (2)
2. 나의 가정적 책임이 무겁다.	61.6 (2)	60.0 (1)	67.6 (1)	73.9 (1)	64.7 (1)	98.9 (1)	57.0 (2)	78.1 (1)	68.5 (1)
3. 가족 중에 염려되는 환자가 있다.	15.0 (6)	16.0 (5)	17.9 (4)	20.5 (4)	16.9 (5)	16.5 (6)	18.4 (4)	17.5 (6)	17.0 (5)
4. 병 외에 걱정거리가 되는 가족원이 있다.	20.8 (4)	20.4 (3)	14.0 (6)	21.6 (3)	19.5 (3)	23.1 (4)	22.3 (3)	22.7 (3)	20.4 (3)
5. 나의 부모는 봉건적이다.	21.8 (3)	17.2 (4)	20.1 (3)	14.8 (5)	18.9 (4)	22.0 (5)	16.2 (5)	19.1 (4)	18.9 (4)
6. 나의 가정적 배경이 싫다.	15.6 (5)	14.0 (6)	17.3 (5)	11.9 (6)	14.8 (6)	23.6 (3)	12.3 (7)	18.0 (5)	15.7 (6)
7. 부모가 이혼 했다.	0 (15)	0.4 (15)	2.2 (14)	1.7 (15)	0.9 (15)	1.1 (14)	3.4 (12)	2.2 (13)	1.3 (15)
8. 부모가 따로 살고 있다.	2.0 (11)	2.4 (11)	3.4 (10)	2.8 (13)	2.5 (12)	4.4 (11)	5.6 (10)	5.0 (11)	3.2 (12)

9. 부모가 불화하다.	4.9 (9)	5.6 (8)	6.1 (8)	4.5 (11)	5.3 (8)	10.4 (8)	3.9 (11)	7.2 (10)	5.8 (9)
10. 아버지의 간섭이 심하다.	5.2 (8)	2.4 (11)	2.8 (12)	3.4 (12)	3.6 (10)	6.0 (10)	2.8 (14)	4.4 (12)	3.8 (11)
11.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다.	1.3 (12)	3.2 (10)	2.8 (12)	5.1 (10)	2.9 (11)	4.4 (11)	10.6 (9)	7.5 (9)	4.2 (10)
12. 형님이나 다른 식구의 간섭이 심하다.	0.7 (14)	1.6 (13)	3.3 (11)	2.8 (13)	1.9 (14)	3.3 (13)	1.1 (15)	2.2 (13)	2.0 (14)
13. 아버지를 싫어 한다.	3.9 (10)	1.2 (14)	5.0 (9)	5.6 (9)	4.4 (9)	10.4 (8)	12.3 (7)	11.4 (8)	6.4 (8)
14. 어머니를 싫어 한다.	1.0 (13)	6.4 (7)	1.1 (15)	7.3 (7)	2.3 (13)	1.1 (14)	3.4 (12)	2.2 (13)	2.3 (13)
15. 가족이 적어서 외롭다.	10.4 (7)	4.9 (9)	10.6 (7)	6.8 (8)	8.7 (7)	15.9 (7)	15.6 (6)	15.8 (7)	10.7 (7)

“나의 가정적 책임은 무겁다”, “나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등으로 浮刻되는 이 領域의 主된 問題意識은 學生들의 家庭形便에 對한 「過重한 負擔感」이다. 위의 두 問項에만 集中的으로 높은 反應을 보이는 點(64.7%, 56.6%로 第1, 第2順位인데 對하여 第3順位の 反應率은 19.5%에 不超過), 그러면서도 問題의 領域別 分布順位는 第10順位로서 最下順位인 點은 全般的으로 前年度와 다른 差가 없다.

7) MR 領域

<表 13> MR領域內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合 計
	1	2	3	4	全体	1	2	全体	
1. 저지른 잘못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28.7 (6)	16.8 (7)	25.1 (6)	13.6 (8)	20.9 (7)	26.9 (7)	17.9 (8)	22.4 (7)	21.4 (7)
2. 나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 같다.	7.5 (12)	9.2 (11)	14.5 (10)	9.1 (11)	10.3 (11)	12.1 (12)	12.8 (9)	12.5 (11)	10.9 (11)
3.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힘이 약하다.	31.3 (4)	26.8 (4)	33.0 (2)	25.6 (4)	29.3 (4)	27.5 (6)	25.1 (5)	26.3 (4)	28.4 (5)
4. 부정한 유희에 잘 넘어간다.	15.3 (10)	12.4 (9)	15.1 (9)	16.5 (7)	14.7 (10)	18.1 (9)	25.7 (4)	21.9 (8)	16.7 (8)
5. 도덕은 위선이다.	28.3 (7)	7.2 (13)	11.7 (11)	10.8 (9)	15.9 (8)	1.6 (15)	9.5 (12)	5.5 (13)	13.0 (10)
6. 나는 불효한 편이다.	29.0 (5)	18.4 (6)	19.0 (7)	17.0 (6)	21.8 (6)	28.6 (5)	18.4 (7)	23.5 (6)	22.3 (6)
7.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니깐 손해가 온다.	44.0 (2)	26.4 (5)	27.9 (4)	26.1 (2)	32.6 (2)	38.5 (2)	30.2 (2)	34.3 (2)	33.1 (2)
8. 가질만한 종교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33.6 (3)	41.2 (2)	29.1 (3)	21.6 (5)	32.4 (3)	31.3 (4)	21.2 (6)	26.3 (4)	30.7 (3)
9. 신자로서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	28.0 (8)	33.2 (3)	27.4 (5)	26.1 (2)	28.9 (5)	36.8 (3)	29.6 (3)	33.2 (3)	30.1 (4)

24 學生指導研究, 第2輯

10. 나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이 다르다.	6.5 (13)	10.4 (10)	8.4 (13)	8.5 (12)	8.3 (13)	17.6 (10)	7.3 (13)	9.7 (12)	8.7 (13)
11. 종교의 비과학성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18.6 (9)	13.2 (8)	15.6 (8)	10.2 (10)	14.9 (9)	20.9 (8)	11.2 (10)	16.1 (9)	15.2 (9)
12. 나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7.8 (11)	8.8 (12)	11.7 (11)	5.6 (13)	8.4 (12)	17.6 (10)	11.2 (10)	14.4 (10)	10.1 (12)
13. 내세(來世)의 유무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서지를 않는다.	50.2 (1)	48.2 (1)	45.8 (1)	44.9 (1)	47.9 (1)	73.1 (1)	31.8 (1)	52.6 (1)	49.3 (1)
14. 종교를 바꾸고 싶다.	3.9 (14)	2.4 (15)	1.7 (14)	1.1 (14)	2.5 (14)	4.4 (14)	1.7 (15)	3.0 (15)	2.7 (14)
15. 나의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고 있다.	2.3 (15)	2.8 (14)	0 (15)	1.1 (14)	1.8 (15)	4.9 (13)	3.9 (14)	4.4 (14)	2.5 (15)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領域에서는 問項을 相當히 幅 넓게 修正하여 本 調査를 實施하였다. 15 個 問項 中 그 表現만이 아니고 內容까지를 고친 問項이 5個에 達하였는데(〈表 3〉參照), 調査 結果는 前年度의 그 것에 比하여 領域別 分布順位와 그 反應率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領域內 問項別 反應率은 上順位 問題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根本적으로 이 領域에 대한 問題意識이 弱하다는 事實이 確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道德 및 宗教問題로 인한 葛藤은 學生問題에 있어서 그다지 큰 比重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領域에 屬하는 問題들에 대한 主觀的인 反應은 宗教人과 非宗教人 사이에 相當한 差가 있을 것이라는 假定 아래 本 研究에서는 全体 對象學生 中, 宗教를 가진 學生들만의 反應狀況을 보기로 하였던 바, 그 結果는 다음의 〈表 14〉와 같다.

〈表 14〉 MR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宗教를 가진 學生들만의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合 計
	1	2	3	4	全体	1	2	全体	
1. 저지른 잘못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34.7 (5)	18.9 (5)	31.8 (5)	11.1 (8)	25.3 (5)	27.1 (5)	27.4 (4)	27.3 (4)	25.8 (5)
2. 나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 같다.	9.2 (13)	12.2 (11)	12.1 (13)	5.5 (12)	10.1 (13)	14.6 (11)	8.1 (10)	10.9 (11)	10.3 (13)
3.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힘이 약하다.	36.7 (4)	34.4 (3)	45.5 (3)	21.4 (4)	35.1 (4)	29.2 (4)	25.8 (5)	27.3 (4)	33.0 (4)
4. 부정한 유혹에 잘 넘어간다.	20.4 (7)	17.8 (6)	16.7 (11)	20.4 (4)	14.9 (9)	14.6 (11)	8.1 (10)	10.9 (11)	16.7 (8)
5. 도덕은 위선이다.	12.2 (11)	7.8 (13)	18.2 (7)	7.4 (10)	11.4 (12)	12.5 (13)	4.8 (13)	8.2 (13)	10.5 (11)
6. 나는 불효한 편이다.	28.6 (6)	15.6 (8)	18.2 (7)	18.5 (6)	20.8 (6)	25.0 (6)	19.4 (7)	21.8 (6)	21.1 (6)
7.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가 온다.	45.9 (3)	33.3 (4)	36.4 (4)	31.5 (3)	37.7 (3)	33.3 (3)	30.6 (3)	31.8 (3)	36.1 (3)
8. 가질만한 종교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12.2 (11)	10.0 (12)	18.2 (7)	9.3 (9)	12.3 (11)	22.9 (7)	8.1 (10)	14.5 (9)	12.9 (11)

9. 신자로서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	60.2 (1)	58.9 (1)	54.5 (1)	50.0 (1)	56.8 (1)	50.0 (1)	56.5 (1)	53.6 (1)	56.0 (1)
10. 나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이 다르다.	17.3 (9)	16.7 (7)	19.7 (6)	16.7 (7)	17.5 (7)	18.8 (8)	21.0 (6)	20.0 (7)	18.2 (7)
11. 종교의 비과학성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20.4 (7)	13.3 (9)	16.7 (11)	7.4 (10)	15.3 (8)	18.8 (8)	9.7 (9)	13.6 (10)	14.8 (7)
12. 나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16.3 (11)	13.3 (9)	18.2 (7)	3.7 (13)	13.6 (10)	16.7 (10)	16.1 (8)	16.4 (8)	14.4 (10)
13. 내세(來世)의 유무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서지를 않는다.	54.1 (2)	55.6 (2)	50.0 (2)	37.0 (2)	50.6 (2)	50.0 (1)	32.3 (2)	40.0 (2)	47.8 (2)
14. 종교를 바꾸고 싶다.	6.1 (14)	4.4 (14)	3.0 (14)	0 (15)	3.9 (14)	6.3 (14)	4.8 (13)	5.5 (14)	4.3 (14)
15. 나의 신앙생활이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고 있다.	5.5 (15)	4.4 (14)	0 (15)	3.7 (13)	3.6 (15)	6.3 (14)	3.2 (15)	4.5 (15)	3.8 (15)

全體 學生의 경우 이 領域에 있어서 反應率 第1順位의 問項은 “내세(來世)의 유무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서지를 않는다” 였는데, 宗教를 가진 學生만의 경우는, “신자로서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로서 좀 더 直接的인 自責을 表現하고 있다.

反應率에 있어서도 各各 49.7%와 55.8%로서 宗教를 가진 쪽이 좀 더 深刻하며, 領域別 分布順位에 있어서도 한 順位 높아져서 第7順位로 되어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道德 및 宗教領域에 관한 問題意識이 宗教人과 非宗教人 사이에 이처럼 僅少한 差(8.9) 밖에 없다는 事實은, 앞으로 그 原因에 대하여 좀 더 徹底히 究明하여 불만한 問題性을 안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8) ACW 領域

<表 15> ACW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合 計		
	1	2	3	4	全體				
1. 공부할 때에 주의가 산만해진다.	61.6 (4)	47.6 (4)	50.3 (2)	54.5 (2)	54.2 (3)	71.4 (2)	63.7 (1)	67.6 (1)	58.0 (2)
2. 늘 시험이 걱정이 된다.	51.5 (8)	31.2 (13)	24.6 (13)	11.5 (15)	33.9 (11)	40.7 (12)	33.0 (11)	31.3 (13)	34.7 (12)
3. 공부를 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당일치기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66.1 (3)	62.0 (1)	67.6 (1)	62.5 (1)	64.6 (1)	80.2 (1)	53.6 (3)	67.0 (2)	65.3 (1)
4. 어떤 학과목에서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	49.2 (9)	45.6 (5)	31.8 (9)	47.2 (3)	44.4 (7)	58.8 (4)	47.5 (5)	53.2 (4)	46.9 (6)
5. 문장에 의한 표현력이 부족하다.	48.5 (10)	34.8 (10)	39.1 (7)	32.4 (7)	39.8 (8)	44.0 (11)	35.2 (9)	39.6 (10)	39.7 (8)
6. 언어에 의한 발표력이 부족하다.	55.4 (6)	42.4 (7)	43.0 (5)	42.0 (5)	46.8 (6)	52.7 (6)	41.3 (6)	47.1 (7)	46.9 (6)
7. 보다 능률적인 학습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45.9 (12)	35.6 (9)	34.6 (8)	18.2 (12)	35.5 (10)	49.5 (8)	35.8 (8)	42.7 (9)	37.5 (10)

8. 공부는 아주 하기가 싫다.	21.5 (15)	33.6 (11)	20.1 (14)	20.5 (11)	24.3 (14)	19.2 (15)	22.3 (13)	20.8 (15)	23.3 (15)
9. 보다 능률적인 독서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47.6 (11)	32.4 (12)	40.2 (6)	26.1 (8)	37.8 (9)	46.2 (10)	28.5 (12)	37.4 (11)	37.7 (9)
10.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	59.6 (5)	53.6 (3)	47.5 (4)	33.0 (6)	50.4 (4)	52.2 (7)	35.2 (9)	43.8 (8)	48.5 (5)
11.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분위기가 아쉽다.	69.1 (2)	54.0 (2)	48.6 (3)	45.5 (4)	56.4 (2)	57.7 (5)	41.3 (6)	49.6 (6)	54.4 (3)
12. 학업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	25.7 (14)	36.0 (8)	25.1 (12)	17.6 (13)	26.7 (13)	22.5 (14)	20.7 (15)	21.6 (14)	25.4 (13)
13. 강의 내용을 요령있게 필기하지 못한다.	30.9 (13)	14.8 (15)	26.3 (11)	15.3 (14)	22.6 (15)	35.7 (13)	27.4 (13)	31.6 (12)	25.1 (14)
14. 수면 부족으로 수업시간이 괴로운 때가 자주 있다.	71.0 (1)	45.2 (6)	31.8 (9)	25.0 (9)	47.4 (5)	62.6 (3)	60.3 (2)	61.5 (3)	51.4 (4)
15. 공부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업 외적(授業外的)인 일이 많다.	52.8 (7)	27.6 (14)	15.1 (15)	21.6 (10)	32.5 (12)	47.8 (9)	52.5 (4)	50.1 (5)	37.5 (10)

前年度에 使用한 調査道具에서 6個 問項의 表現을 修正하여 實施하였다. (<表 3> 參照)

가장 높은 反應率을 나타낸 問項은 前年度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당일 치기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인데, 그 反應率도 昨年度 65%, 今年度 64.6%로 거의 같다. 第2順位의 問項은 內容을 바꾼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분위기가 아쉽다”(56.4%)로서, 이에 따라 前年度의 第2順位였던 “공부할 때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第3順位로 물러서고 있다.

全般的으로 보아, 前年度에 比하여 反應率이 顯著하게 上昇되었는데, 學業上의 問題는 大學生活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領域인 만큼, 앞으로의 學生指導活動에 있어 보다 더 意圖的인 努力이 繼續 強化되어야 하겠다.

9) FVE 領域

<表 16> FVE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大 學					專 門			合 計
	1	2	3	4	全体	1	2	全体	
1.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 가고 싶다.	35.8 (7)	34.0 (7)	27.9 (9)	26.7 (9)	32.0 (8)	34.1 (10)	44.7 (7)	39.3 (10)	34.1 (8)
2. 취직할 때까지는 결혼을 못할 것이다.	55.7 (2)	46.8 (3)	50.3 (4)	44.3 (3)	50.0 (3)	58.8 (3)	51.4 (3)	55.1 (3)	51.5 (2)
3. 가족은 내가 가지려는 직업을 반대한다.	7.2 (14)	4.0 (15)	7.8 (13)	5.7 (12)	6.1 (14)	8.2 (14)	7.3 (14)	7.8 (14)	6.6 (14)
4. 나의 직업 적성을 과학적으로 알아 보고 싶다.	49.2 (6)	40.0 (6)	35.2 (7)	30.1 (8)	40.1 (6)	50.0 (4)	36.3 (9)	43.2 (7)	41.1 (7)
5. 장애에 성공할런지가 불안하다.	35.2 (8)	31.6 (8)	20.1 (10)	21.6 (10)	28.6 (9)	45.1 (7)	36.9 (8)	41.0 (8)	32.1 (10)
6. 인적없는 기능인(技能人)이 될까봐 염려된다.	54.1 (3)	42.0 (5)	35.8 (6)	33.0 (6)	43.1 (5)	61.5 (2)	48.5 (5)	55.1 (3)	46.5 (6)
7. 할 수만 있다면 교육비용이 다른 학교 또는 학과로 옮기고 싶다.	25.4 (10)	28.0 (10)	31.3 (8)	31.8 (7)	28.5 (10)	40.7 (9)	49.7 (4)	45.2 (6)	33.2 (9)

8. 여러 직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싶다.	53.1 (5)	52.0 (2)	55.3 (3)	34.7 (5)	49.7 (4)	45.6 (6)	48.6 (5)	47.1 (5)	43.9 (3)
9. 장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	53.7 (4)	45.6 (4)	60.9 (2)	42.0 (4)	50.7 (2)	43.4 (8)	35.8 (10)	39.6 (9)	47.5 (4)
10.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염려된다.	16.0 (11)	16.8 (11)	4.5 (14)	3.4 (14)	11.5 (12)	33.5 (11)	25.7 (11)	29.6 (11)	16.7 (11)
11. 졸업 후의 병역문제가 걱정된다.	26.4 (9)	31.2 (9)	39.1 (5)	63.1 (1)	38.2 (7)	76.4 (1)	69.3 (1)	72.9 (1)	47.4 (5)
12. 장래에 해기사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	66.1 (1)	61.6 (1)	67.0 (1)	58.0 (2)	63.5 (1)	48.8 (5)	54.2 (2)	56.6 (2)	61.5 (1)
13. 다른 나라에 이민 가고 싶다.	13.7 (12)	9.2 (14)	10.5 (12)	5.1 (13)	10.1 (13)	16.5 (13)	13.4 (12)	15.0 (13)	11.5 (13)
14.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하고 싶다.	4.2 (15)	10.8 (13)	2.2 (15)	2.3 (15)	5.3 (15)	5.5 (15)	5.0 (15)	5.3 (15)	5.3 (15)
15. 나는 해기사로써 바람직한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10.4 (13)	15.6 (12)	20.1 (10)	9.7 (11)	13.6 (11)	24.2 (12)	10.6 (13)	17.5 (12)	14.7 (12)

이 領域에서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장래에 해기사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問項이다. 이 問項은 前年度 調査에서도 第1順位였지만 反應率은 50%에 머물고 있었는데, 本 調査結果는 全體 學生의 63.5%로서 13.5%가 높아지고 있으며, 150個 全 問項 中에서도 第11順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해기사로써 바람직한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에는 極히 낮은 反應(反應率 13.6%, 順位 11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海技士職業에 대한 否定的 態度가 自己 自身의 資質不足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되어 매우 重要한 教育上의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前年度에 比하여 더욱 深化되고 있는데, 海技士職業에 대한 精神的 乃至는 價値 觀的인 教育의 強化와 함께 보다 科學的인 檢査와 指導活動이 計劃되어야 할 必要性을 말하고 있다.

10) CSM 領域

<表 17> CSM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大 學					專 門			合 計
	1	2	3	4	全體	1	2	全體	
1. 진전하게 사귀는 여자 친구를 두고 싶다.	78.5 (1)	56.0 (1)	70.9 (1)	47.7 (2)	64.9 (1)	82.4 (1)	46.4 (2)	64.5 (1)	64.8 (1)
2. 이상적인 여성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	65.8 (2)	53.6 (2)	51.4 (2)	47.7 (2)	56.1 (2)	67.6 (2)	44.7 (3)	56.2 (2)	56.2 (2)
3. 옷 사람으로부터 이성과의 교제를 지나치게 불계 당하고 있다.	5.9 (13)	5.6 (10)	4.4 (14)	5.1 (11)	5.4 (13)	4.9 (13)	3.4 (14)	4.2 (14)	5.0 (13)
4. 성(性) 경험이 있다.	27.4 (3)	38.0 (3)	43.0 (4)	71.6 (1)	41.9 (3)	48.9 (3)	50.8 (1)	49.9 (3)	44.1 (3)
5. 결혼에 대한 조려과 지도를 받고싶다.	24.8 (4)	21.6 (4)	47.5 (3)	27.3 (4)	28.8 (4)	23.1 (4)	30.7 (4)	26.9 (4)	28.3 (4)

6. 나를 사랑해 준 여인은 없을 것 같다.	16.0 (6)	7.6 (9)	16.2 (7)	6.3 (8)	11.8 (7)	16.5 (6)	9.5 (10)	13.0 (8)	12.2 (7)
7. 짝 사랑을 하고 있다.	10.7 (9)	4.0 (13)	10.6 (11)	6.3 (8)	8.0 (10)	8.8 (9)	5.0 (13)	6.9 (11)	7.7 (10)
8. 성에 관해서 많이 알고 싶다.	24.1 (5)	8.8 (7)	17.9 (6)	10.8 (7)	16.1 (6)	22.0 (5)	12.3 (8)	17.2 (5)	16.4 (5)
9. 성경험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다.	10.1 (10)	9.2 (6)	11.2 (10)	11.4 (6)	10.3 (8)	8.8 (9)	14.5 (7)	11.6 (9)	10.7 (9)
10. 결혼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15.6 (7)	12.4 (5)	24.6 (5)	21.0 (5)	17.5 (5)	9.3 (8)	17.3 (5)	13.3 (6)	16.3 (6)
11. 연애를 해서 는 안 될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	12.1 (8)	8.4 (8)	14.5 (9)	5.7 (10)	10.3 (8)	11.5 (7)	15.1 (6)	13.3 (6)	11.2 (8)
12. 애인이 둘 이상 있어서 선택에 고민하고 있다.	6.5 (12)	4.4 (12)	15.6 (8)	4.0 (13)	7.2 (11)	6.0 (11)	6.7 (11)	6.4 (12)	7.0 (12)
13. 애인을 뗀것과봐 근심하고 있다.	3.3 (14)	2.0 (14)	4.5 (13)	5.1 (11)	3.5 (14)	2.2 (15)	6.7 (11)	4.4 (13)	3.8 (14)
14. 동성에 대하여 성적 애정을 느낀다.	2.0 (15)	1.6 (15)	2.8 (15)	1.1 (15)	1.9 (15)	2.7 (14)	1.7 (15)	2.2 (15)	2.0 (15)
15. 여자 문제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8.8 (11)	5.6 (10)	9.5 (12)	4.0 (13)	7.1 (12)	5.5 (12)	10.6 (9)	8.0 (10)	7.4 (11)

이 領域에서도, 上順位 反應 數個 問項, 즉 “진전하게 사귀는 여자 친구를 두고 싶다”, “이상적인 여성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 “성(性) 경험이 있다”, “결혼에 대한 조력과 지도를 받고 싶다” 등에만 偏重된 反應을 보이는 點과, 反應順位등에 있어서 前年度의 調查結果와 거의 同一하다.

다만, 主要 問項에 대한 反應率은 顯著한 上昇傾向을 보이고, 特히 性經驗의 增加現象은 注目을 끈다. 全体 學生의 41.9%, 第4學年의 경우는 勿慮 71.6%가 性經驗을 告白하고 있음은 看過하기 어려운 點이라고 생각된다. 健全한 性倫理의 確立과 有益한 異性交際의 指導를 위하여 大學의 役割이 크게 期待되는 問題領域으로 보인다.

(4) 上·下順位 30個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

以上은 問題性的의 具體的 內容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問題性的의 強度를 알아 보기 위하여 本 調查의 10個 問題領域 全般에 걸친 150個 全問項에 대한 反應率을 基準으로 最上順位로부터 15個 問項과, 最下順位로부터 15個 問項씩을 찾아 내어, 그 學年別 反應狀況을 比較하면 <表 18> 및 <表 19>와 같다.

1) 上順位 反應 15個 問項

<表 18> 上順位 反應 15個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全体 順位	領域	問 項	昨年 調査 順位	全 体 反應 率	學年別 反應率				專 門
					1	2	3	4	
1	SPR	학교생활에 있어서 상·하급생 간의 인간적 인 이해가 어렵다.	5	71.9	86.0	74.4	65.9	50.0	73.1
2	FLC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	71.2	65.6	80.4	62.0	78.4	67.7
2	FLC	좀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	3	71.2	92.5	67.2	59.2	51.7	75.3
4	SRA	음악 미술 기타 예술의 세계에 접촉할 기 회가 적다.	4	70.7	78.5	68.0	69.3	62.5	78.1
5	SPR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2	70.3	78.5	70.0	67.6	59.1	81.7
6	FLC	학교 캠퍼스의 자연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 는다.	15位 以下	67.0	69.7	58.8	71.5	69.3	65.1
6	SRA	취미 오락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	10	67.0	83.3	65.6	63.1	44.3	75.3
8	CSM	건진하게 사귀는 여자친구를 두고 싶다.	8	64.9	78.5	56.0	70.9	47.7	64.5
9	HF	나의 가정적 책임은 무겁다.	7	64.7	61.6	60.0	67.6	73.9	78.1
10	ACW	공부를 비 계획적으로 하고있다(당일치기 시험공부를 하고있다).	6	64.6	66.1	62.0	67.6	62.5	67.0
11	FVE	장래에 해기사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	15位 以下	63.5	66.1	61.6	67.0	58.6	56.6
12	FLC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7	62.7	71.0	68.8	60.3	42.0	56.8
13	SRA	사교활동을 너무 적게한다.	13	60.2	70.6	53.6	61.5	50.0	59.3
14	SPR	학교 안에서는 가슴을 열고 고민을 털어 놓 을 친구가 적다.	15位 以下	58.8	67.4	58.0	67.6	35.8	52.4
15	SRA	자연을 즐길 기회가 적다.	7	58.7	72.3	53.2	54.7	46.0	67.6

昨年度에 85.5%의 높은 反應率로 斷然 第1順位에 있던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가 第2順位로 물러나고, 昨년에 第5位이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상·하급생 간의 인간적인 이해가 어렵다”가 71.9%로 第1順位에 올라섰다. 特히 下級學年으로 내려 갈수록 이 점에 대한 呼訴는 強烈하여 4學年에 50%가 1學年에는 86%이다.

위와 같은 順位의 顛倒現象은 「人間關係」에 대한 問題意識의 上昇이라기 보다는 「營養」 問題意識의 低下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이는 寄宿舍 給食關係의 꾸준한 改善努力이 있어 온 탓으로 짐작된다.

第3位인 “좀 더 많은 思索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前年度와 反應率도 비슷하고 그 順位도 같다.

이 表에서 가장 두드러진 變化는, 前年度에는 46%로서 上順位 問題에 包含되지도 않았던 “학교 캠퍼스의 자연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67%라는 높은 反應率로 一躍 第6順位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前年度 上順位 問項 15個 中 5個가 本 調査에서는 第15順位 以下로 처지고, 새로 5個 問項이 上順位로 浮上하였는데, 第15順位 以下로 내려 간 5個 問項은 다음과 같다.

30 學生指導研究, 第2輯

FLC 領域의 “취미, 오락 기타에 필요한 사소한 잡비가 부족하다”(前年度 順位, 9)

FLC 領域의 “교내 생활에 있어서 보건위생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 11)

SRA 領域의 “잘 한다고 생각되는 특기가 없다” (〃 , 12)

MF 領域의 “나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 , 14)

PPR 領域의 “공상을 많이 한다” (〃 , 15)

한편, 前年度 調査에서는 第1順位 85.5%, 第15順位 51.25%로서 그 隔差가 34.25% 였는데, 本 調査에서는 13.2%로 줄어 들어서 比較的 平準化되고 있다.

이 上順位 第15位の 範圍에 屬하는 問題들을 領域別로 간추려 보면, SRA와 FLC가 各各 4個 問項 으로 가장 많은 것은 前年度와 같고, SPR가 3個로서 前年度 보다 1個 問項이 增加되었으며, HF가 2個에서 1個로 減少되었고, ACW, CSM가 各各 1個 問項씩인 것은 같은 反面, PPR가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 진 代身에 “장래에 해기사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가 第11順位로 새로 浮上함으로써 FVE가 1個 添加되는 등 多少의 變化를 보였다.

2) 下順位 反應 15個 問項

<表 19> 下順位 反應 15個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全体 順位	領 域	問 項	昨年 調査 順位	全 体 反應率	學年別 反應率				專 門
					1	2	3	4	
150	HF	부모가 이혼했다.	148	0.9	0	0.4	2.2	1.7	2.2
149	HPD	폐결핵이 있다.	148	1.3	1.6	1.6	0.6	1.1	0.5
148	MR	나의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고 있다.	136位 以上	1.8	2.3	2.8	0	1.1	4.4
147	HF	형님이나 다른 식구의 간섭이 심하다.	143	1.9	0.7	1.6	3.3	2.8	2.2
147	CSM	동생에 대하여 성적애정을 느낀다.	145	1.9	2.0	1.6	2.8	1.1	2.2
145	HF	어머니를 싫어한다.	148	2.3	1.0	1.2	1.1	7.3	2.2
144	MR	종교를 바꾸고 싶다.	150	2.5	3.9	2.4	1.7	1.1	3.0
144	HF	부모가 따로 살고 있다.	138	2.5	2.0	2.4	3.4	2.8	5.0
142	HF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다.	142	2.9	1.3	3.2	2.8	5.1	7.5
141	SPR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	132	3.0	2.9	2.8	3.9	2.3	7.5
140	HPD	내분비선에 이상이 있다.	145	3.2	2	2.8	5.0	3.4	1.1
139	CSM	애인을 뺏길까봐 근심하고 있다.	139	3.5	3.3	2.0	4.5	5.1	4.4
138	HF	아버지의 간섭이 심하다.	136位 以上	3.6	5.2	2.4	2.8	3.4	4.4
137	HPD	심장에 이상이 있다.	142	3.8	1	4.8	3.9	7.3	1.1
136	HF	아버지를 싫어한다.	136位 以上	4.4	3.9	3.6	5.0	5.6	11.4

위 表에서 150個 問項 中 最下順位 (150位)인 “부모가 이혼했다”가 0.9%이고 그로부터 15個 問項의 上限인 “아버지를 싫어한다”가 4.4%인 바, 그러므로 이 範圍內의 問題들은 다 最大限 全体 學生의 4.4%이하의 反應을 보이고 있음에 不遇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反應은 全体의 觀點에서 이고, 學生 個人에게는 反應率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問題性의 크고 작음을 決定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그러한 問題學生에 대한 担任指導教授의 役割이 더욱 所望스럽다 할 것이다.

이 範圍에 屬하는 問題들을 領域別로 간추리면, HF가 7個로서 가장 많고, HPD가 3個이며, MR와 CSM가 各各 2個 問項 씩이고, SPR가 1個 問項으로 前年度의 結果와는 大同小異하며, 領域別 分布 狀況과도 合致한다.

5. 結論과 提言

지금까지 考察하여 온 結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① 本 大學 學生問題의 領域別 分布順位는, SRA—FLC—ACW—SPR—FVE—PPR—CSM—MR—HPD—HF의 順으로서 國內外 他 大學들과 比較하여 差가 있으며, 本 大學의 前年度 調查 結果의 第 1 및 第2順位가 變化되었다.

② 第1 및 第2順位領域(SRA, FLC)에의 強한 反應은 大學生 問題의 一般적인 傾向과 水準을 壓倒하고 있다.

③ 問題意識의 偏重적인 傾向이 짙다는 것이 再確認되었다.

④ 全体 學生間의 問題意識의 同質성이 짙다는 것이 再確認되었다.

⑤ 問題意識에 있어서 本 大學環境의 制度的인 特殊性이 強하게 反映되고 있음이 再確認되었다.

⑥ 問題意識은 前年度의 調查 結果로부터 顯著한 變化는 없다. 따라서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組織적인 教育計劃의 實踐 없이는 1.2년의 短期間만으로는 意味있는 變化는 일으키지 않는다.

⑦ 本 大學 學生問題의 接近에 있어서는 本 大學의 特殊한 教育目的에 대한 理解로부터 出發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음이 再確認되었다.

以上과 같은 結果와 結論에 立脚하여 本 調查研究가 提言할 것은, 今年度の 調查結果가 昨年度의 그것과 大差가 없는 限, 같은 結果와 結論에 立脚한 提言이 새로운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學生 問題意識에 變化가 없다는 事實 바로 그것은 오히려 昨年度의 調查研究가 提言한 內容⁴⁰⁾의 必要性이 더욱 切實함을 再確認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學生들의 問題意識을 基本的(或은 自然的)인 問題와 文化的인 問題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의 問題意識을 前者로부터 後者の 水準으로 높임과 同時에 이를 바람직하게 解決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教授 卽 教育者의 學生問題에 대한 깊은 關心과 眞摯한 政策的 論議, 이에 따른 教育的

40) 拙稿, 前掲書, pp. 32—34.

計劃 아래 모든 教育力量이 꾸준히 投入되어야 할 必要性이 切實하다.

昨年度에 이은 今年度の 調查研究로써 本大學 學生問題意識의 基本的인 패턴(pattern)은 一層은 把握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學生問題調查研究의 方向과 課題도 基礎診斷的 段階로 부터 보다 더 深化된 段階으로 發展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本大學 學生의 諸特性과 問題意識과의 相關 關係의 究明, 教授와 學生과의 對話의 채널(Chanell) 強化策, 學生들이 學園에 愛着心을 가지고 보다 더 充實한 學園生活을 營爲할 수 있게 하는 方策 등, 學生問題의 「發見」만이 아니라 積極的으로 그 「解決」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의 創出이 앞으로의 研究課題로서 必要하다.

要 約

一. 研究 目的 : 이 調查研究는 前年度에 이어, 1) 各 擔任指導教授의 學生과의 面談指導의 效果를 높이고, 2) 本大學 學生 全體의 問題를 把握하여 學生指導의 基本方策의 設定, 學生指導研究所의 事業計劃의 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함을 目的으로 한다.

二. 研究課題 : 위의 研究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아래의 課題를 究明하려고 하였다.

1) 本大學 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問題(關心·苦悶·欲求 등)는 어떠한 領域에 얼마만큼 分布되어 있는가?

2) 本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他 大學生들의 그것과 比較하여 어떠한 特性을 가지고 있는가?

3) 本大學 學生들의 苦悶(問題)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4) 本大學 學生들이 가장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와 덜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는 具體的으로 무엇인가?

5) 위의 모든 課題에 對하여 前年度와 比較할 때, 本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어떠한 變化를 보이며 그 原因은 무엇인가?

三. 道具· 調查實施時期 및 對象

1) 道具 : 위의 問題들을 알아 보기 위하여 使用된 道具는 昨年度의 「Mooney Problem Check List」를 基本 資料로 參考하되 本大學의 實情에 알 맞게 翻案한 「대학생 문제 체크리스트」를 今年度에 다시 修正·補完한 것이다.

2) 調查 實施時期 및 對象 : 1976. 10. 4~10. 8의 期間內에 本大學 總學生 986名 中 912名을 對象으로 各 擔任指導班 別로 實施하여 얻은 結果와 結論은 다음과 같다.

四. 結果 및 結論

1) 本大學 學生問題의 領域別 反應 順位는 다음과 같다.

SRA—FLC—ACW—SPR—FVE—PPR—CSM—MR—HPD—HF

2) SRA와 FLC의 問題領域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大學生 問題의 一般的 水準을 壓倒하는 強한 反應을 나타내어 本大學 學生問題의 한 特色임이 再確認되었다.

- 3) 全体 學生 間에 問題意識의 同質性이 強하다는 것도 再確認되었다.
- 4) 本 大學 學生의 問題意識은 몇 개의 問題領域에만 偏重하는 傾向이 強하다는 事實이 再確認되었다.
- 5) 問題意識의 여러 側面에서 本 大學 教育環境의 特殊性이 깊게 反映되고 있음이 再確認되었다.
- 6) 前年度에 比한 問題意識의 變化는 顯著하지 않았다.
- 7) 學生들의 問題意識을 變化시키기 위하여서는 보다 더 組織的이고 計劃的인 教育活動이 꾸준히 持續되어야 한다는 示唆을 얻었다.
- 8) 大學生 問題診斷을 위한 道具는 앞으로도 꾸준히 改善·洗練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s that the Students of Korea Merchant Marine College are Concerned about (II)

Lee, Young Taek

This is the continued study to that of 197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fessor's guidance and counselling for the students assigned to them, by investigating the problems of the students, but also to offer the materials needed for the establishing a fundamental principle of guidance and for the activity program of The Student Guidance Center.

The major items investigated are as follows:

1. What problem areas are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distributed over and how deeply are the students concerned about?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students of this colleg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students of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3. What are the problems that the students of this college are interested in?
4. What are the more urgent problems and less urgent ones?
5. What changes of students problem consciousness occurred and what were the causes, in comparison with the above mentioned items in 1976's investigation?

The College Student Problem Check List, which was revised in 1975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s of this college on the basis of the Mooney Problem Check List was revised again in 1976 and used as a tool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students.

An investigation on the problems of 912 students was conducted from October 4, 1976 to October 8, 1976.

As a result of the above mentioned investig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The order of the problem areas attracting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is as follows:
SRA-FLC-ACW-SPR-FVE-PPR-CSM-MR-HPD-HF
2. It is reaffirmed that the students of this college make stronger responses to the problems areas such as SRA and FLC than those of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this fact is a unique feature of the student problems of this college.
3. It is also reaffirmed that a homogeneousness of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whole students body without regard to year grade is clearly recognized.

4. That a marked tendency to the concentration of students' interests in some particular problem areas is found out in the distribution of students' responses is reaffirmed by 1976's investigation.
5. In comparison with 1975's research, particular changes are not found out in 1976's.
6. That in order to change the students problem consciousness, a more organic and planned activities of education should be steadily sought and conducted is suggested by this study.
7. The necessity for improving The College Student Problem Check List used in this study is suggested in order to obtain a more effective tool for finding out the problems.



參 考 文 獻

1. 沈載炯; 學生生活指導研究所의 運營方案—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를 中心으로—, 學生指導研究, vol. 3. (仁川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5. 2.)
2. 劉在奉; 生活指導論, 서울: 法文社, 1973.
3. 尹八重; 가이던스 카운슬링, 서울: 教育出版社, 1973.
4. 尹八重; 서울教育大學生이 지닌 問題의 內容과 程度, 학생지도 연구, Vol. 1. (서울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2)
5. 李榮德; 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教學圖書, 1972.
6. 金炳廈·全宰一;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에 의한 大學生의 問題傾向, 學生指導研究, Vol. 1, No. 1. (韓國社會事業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7. 李明子; 大學新入生의 問題에 關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Vol. 7, No. 1. (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4)
8. 이관용; 대학생 문제제 관한 일 연구, 學生研究, Vol. 7, No. 2.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0. 6)
9.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 結果, 學生研究, Vol. 3, 1966.
10. 李元浩;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를 通한 在學生의 問題調査, 研究報, Vol. 3. (釜山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6)
11. 한법숙·한덕용; 대학생문제조사, 학생지도연구, Vol. 1, No. 1.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71)
12. 愼鏞日; 師大生의 問題傾向 調査研究, Vol. 2. (公州師範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13. 愼鏞日; 仁荷大生의 問題傾向 調査研究, 學生指導研究, Vol. 1. (仁荷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4)
14. 安德子; 本校生의 問題傾向調査, 學生生活研究, Vol. 10.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4)
15. 金學守·安昌圭; 大學生의 個人的 問題에 대한 考察, 학생지도연구, Vol. 5, No. 1. (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2)
16. 鄭駟煥; 大學生들이 지니는 問題에 대한 小考, 教大生을 中心으로, 學生指導研究, Vol. 2. (仁川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4)
17. 羅炳述; 大學生의 倫理教育에 對한 管見, 國民倫理研究, Vol. 3, (서울, 國民倫理教育研究會, 1974)
18. 黃明淑; 韓國青年이 直面하고 있는 問題의 分析—學業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漢陽大學校論文集, Vol. 8. (漢陽大學校, 1974)
19. 崔震昇·宋明子; 大學生의 領域別 問題傾向에 關한 研究, 學生研究, Vol. 6. (東亞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5)
20. 邊昌嶺 外4人; 大學生의 問題傾向과 相談事例의 比較, 學生指導研究, Vol. 1. (慶北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8)
21. 崔炳媛; 淑大生의 問題, 學生生活研究, Vol. 7. (淑明女子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3)
22. 金道煥; 釜山大學校 學生問題의 分析, 研究報, Vol. 9. (釜山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3)
23. 姜奎錫; 教育大學生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에 關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Vol. 1. (강릉교육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1973)
24. 趙大鳳; 大學生의 個人問題 樣相研究, 學生研究, Vol. 5. (嶺南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4)
25. 李永澤; 韓國海洋大學生의 問題傾向에 대한 調査研究, 學生指導研究, Vol. 1. (1975)
26. 張大熙; 大學生 指導問題提起의 教育的 要因, 學生指導研究, Vol. 1. (忠南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2)
27. 金基錫 外5人; 大學教育內容에 關한 綜合的 研究, 中央教育研究所, 1967.
28. 朱貞一 外4人; 大學生問題 診斷檢査標準化 製作報告, 學生生活研究, Vol. 9. (淑明女子大學校 學生指導研

究所, 1975)

29. 林承權; 相談申請書에 나타난 學生問題의 分析, 學生研究, Vol.6.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9)
30. 金武吉; 大學生問題에 關係되는 要因에 관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Vol.5. (全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6)
31. 韓東一 外3人; 韓國大學生의 大學生活適應에 관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Vol.3. (성균관대학교 학생문제연구소, 1976)
32. 이원호; 남여공학대학에 있어서 여대생의 문제조사, 研究報, Vol.7. (釜山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6)
33. 曹元鎬; 大學環境에 대한 大學生의 知覺特性에 관한 研究, 學生指導研究, Vol.1. (韓國海洋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5)
34. Freeley, Austin J.; Argumentation and Debate, 2n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66.
35. Hatch, R.N. & Dressel, P.L.; Guidance Service in the Secondary School, Dubuque, Iowa: W.M.C Brown Co, 1953,
36. Traxler, A.E.; Techniques of Guida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5.
37. Mooney, R.L, & Gordon L.V.; Manual for the Mooney Problem Check List,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1960.



